

세상을 적시는 단비같은 사람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송민영 추모집

해방세상에서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2015년 11월 30일 한참 회의를 하다가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당일 밤 비행기 표를 끊어 태국 어느 섬으로 갔습니다. 인간이 간사한지라 추운 날씨에서 열대의 후덥지근한 날씨로 바뀐 건 금세 몸에 익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민영이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영아! 금방 일어날 거지?’ 무한히 되뇌었지만 부모님이 오신 다음 날 새벽에 끝내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말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하고 장례식과 삼우제를 마칠 때까지 명한 상태로 올다가 얘기하다 가슴 한구석이 꺼져 내린 것 마냥 한숨 쉬었던 것은 민영이를 사랑하는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 걸까, 하늘은 또 왜 이러실까요. 우리 곁에서 평생 함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길 같이 걸어갈 금쪽같은 사람을 어찌 데려갈 수 있나요. 이렇게 절규하고 울부짖고 아무리 부정해도 이 지옥 같은 비현실은 시간이 일초 이초 지나갈수록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셀 수 없는 기억들이 떠오르고, “부디 우리 민영이 잊지 마세요. 끝까지 기억해 주세요”라고 화장장에서 제 손을 붙잡으며 오열하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런가봅니다. 모든 역울한 죽음은 ‘기억’하는 것이 제일 소중한

일인가 봅니다. 민영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먼저 간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49일 동안 정성을 다하여 추도를 하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다음의 좋은 세상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49재의 의미라고 합니다. 내 기억을 되새기고 다른 이들의 기억을 모아 모두의 자산으로 만들고자 49재에 즈음하여 그 첫걸음으로 추모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추모집은 민영이가 쓴 글, 만든 선전물, SNS와 사진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활자로나마 민영이의 삶과 운동이 싱그럽게 펼떡이고 그것이 여기 우리에게 위로와 새로운 삶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영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민영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긴 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뜻을 해야 할까요. 이 추모집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저마다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모와 기억을 위한 행동은 해방을 위한 우리의 투쟁과 한 쌍일 것입니다. 발딛고 선 자리가 크지 않아도 현실을 바꾸고 대안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꿈은 큽니다. 길지 않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민영이와 함께한 나날은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빛났고 세상을 적시는 단비처럼 아름다웠던 민영이가 앞으로도 어디서나 우리의 삶과 투쟁에 스며있을 것입니다. 민영이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사회진보연대는 해방 세상을 향해 더 지혜롭게 분투하겠다는 결의를 다시금 다집니다. 민영아 부디 꼭 다시 만나자.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정영섭

자랑스러운 내 딸 민영아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아부지!’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은 민영(民英)아! 한 달이 넘었는데도 모든 게 뒤죽박죽 영망이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구나. 서른둘이라는 너무 짧은 인연에 그저 안타까운 이 마음을 도대체 어찌하란 말이냐?

초등학교 다닐 때였지? 두 층 아래서부터 신발 벗어가며 집이 있는 5층까지 달려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옆에 엎드려 숙제부터 후다닥 해치우고는 롤러스케이트를 들고 뛰어 나가던 모습. 사촌동생들이 집에 오면 즉석에서 쑥싹쓱싹 그림을 그려주던 모습. 언니만 용돈을 더 많이 준다고 빼져 울고불고해 언니하고 똑같이 주었던 일. 엄마 아빠 잔심부름까지도 군말 없이 척척, 한 없이 착하기만 했던 내 딸 민영아!

서울대학교 합격한 후 엄마 아빠는 너무도 기뻤지만 먼 서울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걱정되긴 했었다. 그래도 기숙사 생활이라 조금은 걱정을 덜했던 것 같구나. 새로운 서울 생활 잘 적응 하겠지,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동아리 학회 활동도 잘 적응해나겠지, 하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설마 네가 아빠가 갔던 길을 가고 있을 줄이야. 가족에게 걱정 안 주려는 생각이었겠지만 그래도 사실대로 말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좀 더 대화하지 못했던 게 가슴을 저리게 하는구나.

자랑스러운 내 딸 민영아!

장례를 치르며 추모제 삼우제까지 애통함과 슬픔 아쉬움을 함께한 많은 선후 배 동지들의 가슴 찡한 위로를 받으며 민영이가 갔던 그 길에 함께하고 있음에 너 무도 아픈 마음으로 너를 보내게 되었구나. 네가 지나왔던 발자취를 따라 전국학생 행진과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의 사회진보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인 활동들을 알게 되었고,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공공운수노조의 여성, 미 조직의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밝히는 빛을 보았다고 감히 말하고 싶 구나.

민영이와 함께 했고, 또 가슴 깊이 슬퍼했던 모든 선후배 친구들, 동지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특수고 용직, 농민, 여성, 장애인, 영세자영업, 도시빈민 여러 부문에서 활동하고 연대하는 희망의 그 길에 함께하시는 모든 동지들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영이가 해왔던 지난 활동들에 대하여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해주시고 자료를 정리해 추모집을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노동자가 노동의 주인 되는 참세상의 그 날을 위해 작은 발걸음이 나마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영 아빠 송순교



송민영이 걸어온 길

1984년 11월 5일 서울 출생, 광주에서 성장

200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입학, 전국학생행진(구 전국학생연대회의) 활동

2005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모반 학생회장

2006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생회 집행위원장

2007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

2009년 전국학생행진 중앙운영위원회 조직국장

2010년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차장

2013년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2015년 12월 2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

*송민영 조직국장의 유해는 파주 서현공원 동관 109호에 안치되었습니다.

차례

- 3 해방세상에서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 5 자랑스러운 내 딸 민영아
- 7 송민영이 걸어온 길
- 10 송민영을 기억하며

2003~2009 대학시절

당신에게 전하고픈 몇 가지 이야기 25 / 미학/모반 학생회장을 결의하며 29 / 박종철
열사 18주기 추모사업 인문대 참가단을 제안합니다! 32 / 인문대학생회 선거 모토 소
개글 <너를 만나면, 세상이 움직인다, PLAY!> 35 / 인문대학생대표자회의 하반기 총
노선 38 /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낼 당신, 대중운동에의 힘찬 재도약을 준비합시다!
45 / 신자유주의 여성 활용전략 반대! 여성노동권 쟁취! 폐미니즘으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49 / 학번노트 57 / 선전물 60

2010~2012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차장

120년간의 외침!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 69 /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
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최저임금 72 / “노조 가입 해고 너무해” 한마디에 해고 74 / 충
북 학교비정규직 “진짜 사용자 이기용 나와라” 76 / 청와대와 현대차그룹이 나선 민주
노조 파괴 프로그램 78 / 쉽지 않은 여성사업, 하지만 희망은 있다! 84 / 학비가 너무해
90 / SNS 91 / 선전물 94

2013~2015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민주노조의 새로운 희망은 어디에서 짹트는가 105 / 조직화 경쟁을 넘어 질적인 도약 을! 108 / 부릉부릉~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화 114 / 공공운수노조 조직화, 성공의 기록 들 120 / 《자본》과 나 127 /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화캠페인단의 사회운동노조적 의미 혹은 발전방향 132 / SNS 135 / 선전물 139

송민영을 추모하며

노동운동 걱정하던 ‘걱정국장’ 이제 그만 쉬렵 148 / 한성실 추도사 149 / 정이량 추도사 153 / 오미경 추도사 155 / 김윤영 추도사 158 / 김성민 추도사 162 / 한지원 추도사 164 / 추도시_그대 떠난 자리에 167 / 서른둘 노동운동가 송민영을 기억하며 171 / 내 옆자리 민영이 174 / 자랑스러운 나의 언니 176 / 수고 많았어요, 꼭 쉬어요 178 / 고인을 기억하며 180 / 멋있는 언니 182 / 고맙습니다 못다 한 내 뜻을 남아서 할게요 184 /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선배 186 / 꼭 지켜봐주세요 188 / 그녀는 누구보다 현재를 살았고, 그래서 영원히 살 것 189 / 공항 가는 길이야 190 / 단비처럼 아름다웠던 민영아 191 / 늦게 쓰는 편지 192 /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동지, 민영 선배에게 194 / 아프고 미안하다 196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97 / 항상 미소를 간직한 동지 197 / 언니 나야 진랑이 198 / 하늘나라에서도 예쁨 독차지 하면 안 돼요 200 / 송! 202

송민영을 기억하며

허락된 생이 삼십 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리 없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그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시간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재능, 성실함, 열정은 매순간 반짝이는 성과들을 남겼다. 고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녀가 이 세상에 새긴 의미를 짚어보자.

2003~09년 :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학생운동에 헌신하다

고인은 1984년 11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랐다. 2003년에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학생운동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으면서도 몇몇 대학에서 건재하며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었다. 민주화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 정권이 만들어내는 모순에 저항하고, 노동자·농민·빈민들과 연대하는 것이 이 시대 학생운동의 임무라 믿는 청년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인은 2003년부터 7

년간 전국학생행진(구 전국학생연대회의)의 일원으로서 학생운동에 매진했다.

고인이 대학에 입학한 2003년은 노무현 정권 첫 해였다. 미국의 침공으로 이라크 전쟁이 터졌고 대통령은 파병을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은 허공에 흩어졌고 한 해 동안 6명의 노동열사가 있었다. 고인은 반전평화운동과 비정규직 투쟁에 참여하며 학생운동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 대학시절 내내 (노무현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노동자민중이 투쟁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취업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점·스펙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학공동체가 파편화되어갔다. 전국학생행진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차별, 착취, 경쟁에 맞서 평등·자유·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학생자치도 되살아날 수 있다고 봤다. 고인은 2005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모반 학생회장, 2006년 인문대학생회 집행위원장, 2007년 총학생회 정책국장을 역임하며 그 길에 앞장섰다.

많은 사람들이 품 넓고 따뜻하며 명석한 그녀를 따랐다. 고인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가득해, 사람들의 개성이나 매력을 발견해서 별명을 지어주곤 했다. 신림동 녹두거리에서 자취를 하던 고인은 자신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는 후배들이 외로울까봐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만화와 영화도 빌려보며 친언니, 누나처럼 잘 챙겨주곤 했다. 미니홈피에는 늘 누군가를 만난 기록을 다정히 담아놓은 게시글이 가득했다.

2008~09년에는 전국학생행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폐미니즘 사업 담당자와 조직국장을 맡았다. 조직 내외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어려운 위치였지만 특유의 세심함을 바탕으로 토론과 문제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선후배, 동기들에게 큰 신임을 얻었다.

2010~12년 : 민주노총 젊은 간부로 충북지역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투쟁할 때 세상이 바뀐다는 신념을 따라 노동운동을 시작한 고인의 첫 직책은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차장이었다. 고인은 뛰어난 친화력과 활동력으로 낯선 지역에 금방 적응해나갔다. 먼저 충북본부의 살림을 살뜰하게 꾸려나갔다. 보리쌀을 파는 재정사업으로 쏠쏠한 수입을 남겨 방송차 한 대를 마련했을 정도다. 조직의 재정을 책임지는 총무는 그 중요성에 비해 빛이 잘 나지 않는 자리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또한 교육선전업무를 겸해 소식지 <단비> 발간, 현장활동가 맞춤교육을 맡아 진행했다. 젊은 간부답게 ‘SNS 활용법’ 교육을 신설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요청받은 선전물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투쟁사업장에 어떤 기획과 선전이 필요할지 먼저 고민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곤 했다. 특히 정성스레 그린 손 그림이 돋보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낸 ‘학비가 너무 해’ 카툰, 교사·공무원·비정규직 모두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임을 그림으로 표현한 ‘우리는 모두 교육노동자’ 뱃지, 이명박 정권의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던 유성기업지회를 위한 재정사업 ‘희망커피’, 청주대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쌈싸먹자’ 행사 포스터 등 그녀의 작품들에는 좋은 메시지와 디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묻어난다.

고인의 진면모는 바로 이런 대목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주어진’ 역할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충북지역운동에 활력이 될 만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먼저 나서서 조직하고 실천했다. 여성사업과 소모임 활동에 열성적이었던

것도 그렇다. 고인은 충북본부의 여성사업 물꼬를 튼 사람이었다. 학생시절부터 폐미니즘 운동을 자신의 과제로 여겨왔기에 탄탄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매년 치르는 3.8 여성의 날 행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여성노동자 이야기마당, 여성의 날 촛불문화제 등을 열어 지역에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 생동감 넘치는 행사를 여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여성노동자 강연, 야유회, 여성조합원의 밤 등 후속사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지역문선패와 여성활동가 독서모임을 조직하기도 했다.

지역의 노동운동 선배들이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왜 운동에 뛰어들었냐”, “이렇게 작은 지역에 왜 왔느냐” 궁금해하면 고인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울 때 운동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간부로서 혼신했던 시절 고인의 숨결은 현재까지도 충북지역운동에 따스하게 남아 있다.

2013~15년 :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에서 사회운동의 전망을 고민하다

2013년부터 고인은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으로 활동했다. 조직 전반을 관장하고 구석구석을 살피며 필요한 논의와 소통을 담당하는 것이 조직국장의 기본 임무였다.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는 고인이 조직 내 소통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녀는 늘 회원들을 먼저 찾아가는 조직국장이었고, 한명 한명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며 지지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다. 분야와 지역을 막론하고 운동이 쉽지 않은 시대에 그런 그녀의 노력은 더 소중했다. 활동가들은 그녀 덕분에 고립감을 덜고 자신감을 가졌다. 요컨대 지금 시대에 꼭 필요

한 타입의 활동가였다.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관련 사업과 활동가들의 모임을 맡아 진행하며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세대가 고령화되어가는 가운데 오래된 노조조직들의 힘을 잘 지키면서도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2000년대 들어 새롭게 조직된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으며 더 많은 노동자들을 노조로 끌어세울 수 있는 전략을 고민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공공운수노조 조직화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정세와 주체적 조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썼다(이 책 120~126페이지 수록).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선전물을 만들고 연대를 조직하는 것도 그녀가 생의 마지막까지 힘썼던 일이다.

고인이 사무처 회의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제가 할게요”다. 기본 업무만 해도 바쁜 와중에 연대해야 할 중요한 투쟁이나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생길 때면 늘 “제가 할게요” 하며 나섰다.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움직였다. 민주노총의 다양한 산별연맹의 투쟁에 연대하고, 노동개악에 맞선 선전활동에 앞장서고, 빈곤사회연대를 필두로 한 반빈곤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팀을 조직해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사회운동의 전략적 목표와 전망에 관한 학습과 토론에 매진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와 재벌’ 연구팀에 참여하며 올 초에 결과물을 낼 예정이었고, ‘장기불황, 고령화 시대 일본 노동운동의 시사점’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폐미니즘 신간서적은 꼭 챙겨보며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주변에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러나 고인은 활동밖에 모르는 ‘모범생’은 아니었다. 가장 일찍 사무실에 출

근해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한 후에 저녁때는 꼭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사실 그녀에게는 회원들과 친구, 선후배 관계가 구별되지 않았고, 다이어리에는 매일 만날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연남동 일대의 맛집과 술집들을 섭렵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진보연대 댄스 1인자답게 홍대 클럽도 누볐다. 음악을 사랑해 콘서트와 페스티벌도 자주 찾아다녔다. 그러고도 다음날이면 또 말끔한 모습으로 제일 먼저 출근해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남은 과제는 우리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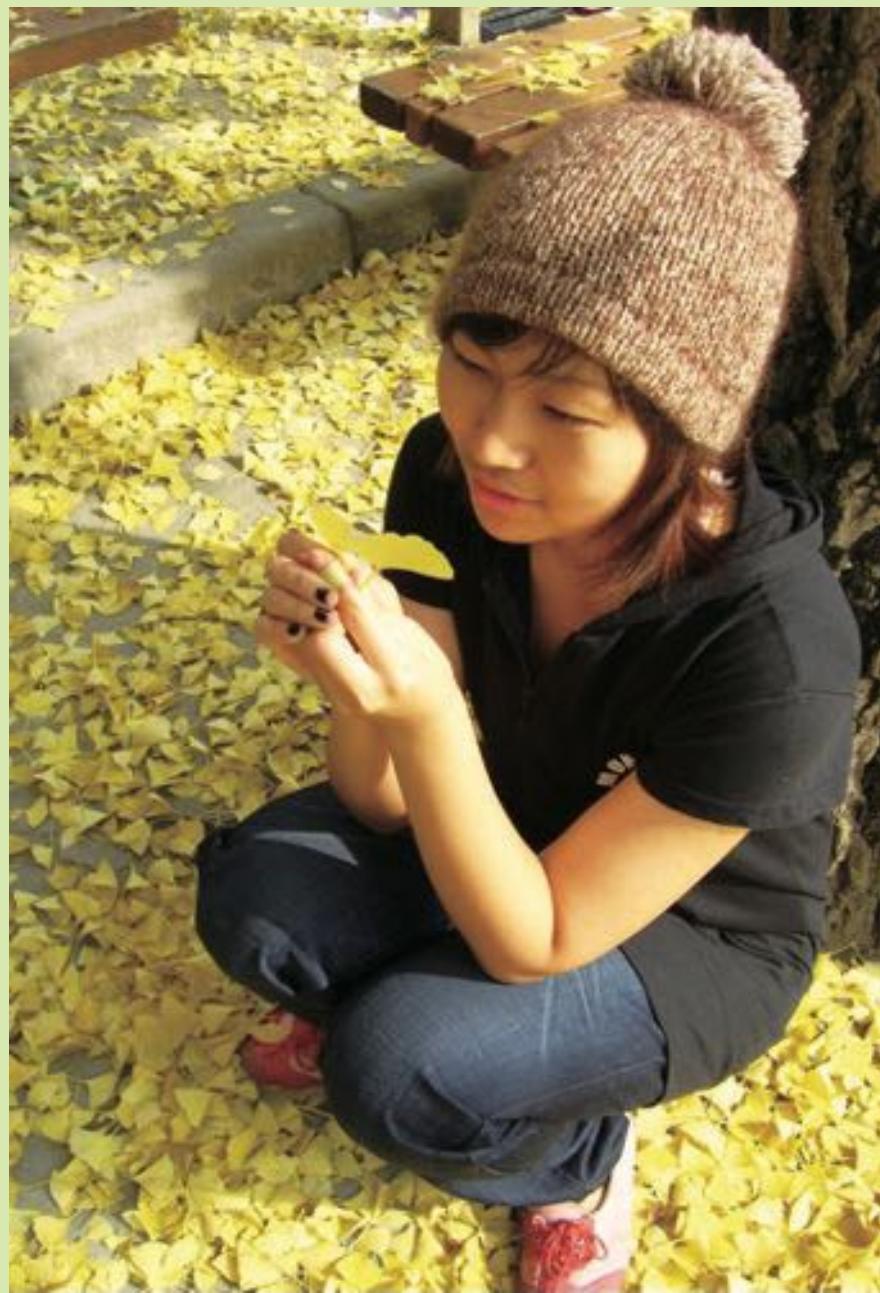
고인이 남긴 아름다운 발자취들을 따라가다 보니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빨리 잘 하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그녀가 미소 지으며 “저는 어릴 때부터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마음 편히 노는 아이였대요”라고 답했던 장면이다. 어쩌면 고인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숙제를 남들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완수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훌훌 떠난 건 아닐까.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의 뜻이다. 고인이 좋은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

황수진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작성 / 《오늘보다》 2016년 1월호 수록



“ 학생회는 각자 서로에게 다른 의미와 기억들로
남아 있겠지만, 저에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대신,
잠깐 속도를 늦추고 다른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말을 걸어준, 그런 것이었습니다 ”

2003~2009
[대학시절]















당신에게 전하고픈 몇 가지 이야기

2004년 2월

새내기새로배움터 미학/모반 자료집

정치, 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나요? 유머 사이트에서 흔히 거대 쓰레기장으로 비유되는 국회?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는 정치꾼들? 비리와 검은 돈이 오가는 정치판?

‘정치’를 빼앗기다

굳이 국어사전의 정의를 들지 않아도-실은 국어사전의 정의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저런 것들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온갖 부정적인 함의와 부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치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즈음, 면접을 준비하려고 정치적 사안, 이슈들을 접할 때마저도 그것은 하등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세우

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댈 수야 있었지만, 그것과 나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내가 아닌 어느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혹은 우리는, ‘정치’를 빼앗겼습니다

2003년 가을에서 겨울이 될 즈음, 중앙도서관 터널에서 몇 년 동안 김밥을 팔던 할머니께서 바람 막을 곳도 없는 인문대 한 편에 앉아서 김밥을 팔고 계셨습니다. 친구에게 들으니 어느 학생이 그 김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해서, 할머니를 중앙도서관 터널에서 내쫓은 것이라 하더군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너무한 것 아니냐, 오히려 지금까지 잡상인이 교내에서 팔고 있던 것이 이상한 것 이 아니냐.

흔히 ‘대학 사회’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커뮤니티는 또래집단 정도의 시시한 이름을 걸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 단순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어른들’의 사회와 좀 더 비슷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질서를 재편하고 담론들을 구성하는 곳이 대학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김밥 할머니가 중도 터널에서 김밥을 팔아도 되느냐 마느냐, 에서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특정 학점 이상 재수강 금지, 광역화와 전공 진입 등 대학 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의 삶과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 남자아이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고, 저 여자아이는 국어와 문학을 좋아하고 마비노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일까요? 이 아이는 한 달 50만 원짜리 과외를 하고 저 아이는 문제집만 풀고 있다면, 그것 역시 개인의 공부 방식의 차이에 그치고 마는 것일까요?

굳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내 안으로 얹지로 끌고 오지 않더라도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충분히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읽어낸 나의 이야기와 입장들이 어떠한 사안을 만났을 때, 그것은 면접용 지식이 아닌 내 이야기, 내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상의 정치

정치는 내가 저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나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 속에도, 자신을 소개할 때도, 영화를 고르거나 책을 고를 때에도,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에도 존재합니다. 강의 시간표를 짤 때에도, 레포트를 쓸 때에도, 신문을 읽을 때에도, 물론,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알겠지만, 정치를 되찾아 오자는 것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누구 후보가 어떠하고 현 정권이 어떠하고 등에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비정치적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이라면 정치적 사안에 민감하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에, 그리고 대학 사회에, 곳곳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에 한 번 의문을 품어본다면, 소소한 나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라는 말에 담겨있는 부정적 이미지들을 한 번 털어내고, 나의, 그리고 내 주변의 것들부터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바꿔낼 수 있는 정치라는 것이, 나의 일상에 데굴데굴 굴러올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떠보지 않으실래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혹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여성주의, 광역화,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입장이 이렇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 몸담게 될 당신들은 이러해야한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흘려버리거나, 불만만 갖고 있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가깝게 가져오고, 함께 생각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학/모반 학생회장을 결의하며

2004년 9월

‘모반 코드’ ‘모반 분위기’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 1년이라는 짧은 사이를 안에서의 반 공동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반방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그것을 담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새터-입학-개강파티-새내기 교양학교-…’식으로 이어지는 사이를 안에서 2학년으로써 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대학에서의 반 공동체라는 것은 그저 주어져 있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만들어나가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새내기 시절 믿고 있었던 ‘반 공동체의 굳건함’과 2학년 때 반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반 공동체의 불안정성’ 사이의 갭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이 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반 학생회장을 결의한다는 것은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불안함 속에서 그나마 끈을 놓아버리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었습니다. 반 공동체라는 공간에서 울고, 웃고, 함께하는 그/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 안에서 느꼈던 ‘희망’은 분홍빛 미래를 향한 청사진은 아닐지언정, 이 반 공동체를 쉽게 놓아버릴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학생회장 결의’는 결코 쉽게 할 수 없던 것이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문장이 늘어가는 만큼 ‘내가 잘 한 일일까’하고 몇 번씩 머리 속으로 되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나를 두렵게 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서로에게 침투해가는 과정에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만)하는 관계에 염증을 느낀 것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자신감 만빵으로 사람들 사이로 스윽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넉살도 깡다구도 없는 성격이라, 더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침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변화에 서로 서로 관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희망이다’라는 선본 모토에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자만이 아닌, 그러한 관계에서 발견한 희망이기에, ‘우리가’ 희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홍성의 농민대회 때의 어떤 분의 표현을 빌자면 ‘아프리카 초원의 메뚜기 떼처럼 몰아닥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저기 머나먼 경제, 정치, 사회의 이야기, 우리와 떨어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미국의 공격, 1인 승무제와 2교대 근무제에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 받기 위한 대구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따로 존재하는 각각의 이야기가 아닐 것

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놈의 신자유주의에 휩쓸려, 영어도 컴퓨터도 잘하고 학점도 잘 받아야, 그렇게 경쟁력을 키워야 겨우 취직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 버들골에 모여 앉아 기타를 치며 ‘나이 서른에 우린 무얼 하고 있을까’ 라고 노래하던 기억은 아직도 저에게는 대학의 낭만인데도 말이죠.

출사표

후보약력

-미학과 모반 2학년 송민영

1984.11.5 서울에서 태어나다 (그리나 서울을 떠와 전히 한 줄 모른)

2003. 광주중앙여고 졸업

2003. 2. 모반을 만나 인생 말리기 시작하다

2003. 5 역사철학 학회 인식과 실천 학회원 되다

2003. 9 03학번대표

2004. 3. 교육투쟁 반책

2004. 7. 농활 반성폭력주체

2004. 9. 미학과 모반 학생회장 입후보

제23대 미학과/모반 학생회 선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기회 망이다 *ing*

학생회는 각자 서로에게 다른 의미와 기억들로 남아 있겠지만, 저에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대신, 잠깐 속도를 늦추고 다른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말을 걸어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순들을 외면하지 않고, 집회에서, 세미나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그것들을 늘 담고 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것만은 아니지만, 함께 울고, 웃고, 감동받았던 그러한 기억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보다 치열하게, 진지하게, 당신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박종철 열사 18주기 추모사업 인문대 참가단을 제안합니다!

2005년 1월

박종철 열사의 삶과 투쟁

평범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에게 사랑 받으며,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인정이 많았던 박종철 열사는 1984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해 동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87년 1월 13일 그의 선배였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14일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고, 그날 밤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터무니 없는 발표를 하였고, 이후 부검의 등의 진술과 끈질긴 조사 끝에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1965년 4월 1일 부산 서구 애동 출생
1984년 3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입학
1986년 4월 11일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여 구속
1986년 7월 15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출소
1987년 1월 13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요원에 의해 연행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폭행으로 운명 (당시 22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

18년이 지났습니다

묻혀 있던 어떤 기억을 다시금 꺼내 보는 것은, 그것에 대해 단지 추억하며 소소한
감상에 빠지는데 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신념으로 목숨
을 걸었던 박종철 열사의 삶을 18년이 지난 오늘날 기억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기
록을 더듬는 것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싸우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투쟁에,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인 의미일 것입니다.

1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묻히고 가려진 박종철 열사의 삶과 투쟁, 그리고 열
사정신을 되짚어 봄과 동시에, 평등하지 않고 우애롭지 않은 세상에서, 진정 우리
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로써 추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라크 파병 철회하라!

새해를 맞는 기쁨에 들떠 있던 2004년 12월 31일, 국회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
라크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만과 폭력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장

폭력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라크 땅에서 자이툰 부대의 평화와 재건이라는 명분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파병과 연장 방침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평화를 향한 열망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몇 천, 몇 만개의 촛불들을 무시한 반민주적, 반민중적인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반대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나갑시다.

박종철 열사 정신은 그 당시의 민주화를 향한 요구로써 기억됨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절박한 요구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우리의 실천으로 가져올 때, 열사 정신이 시대에 살아있을 수 있음을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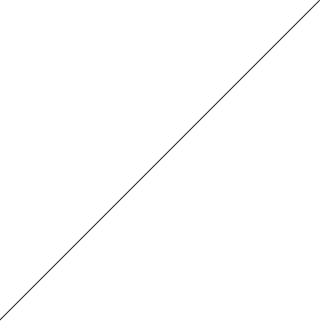
참가단에 함께해요!

1/9(일) 오전 11시 청량리역 집결 및 모란공원 참배

1/13(목) 2시 중도 옆 추모식

4시 멀티미디어동 추모 강연회

1/14(금) 마석 모란공원 박종철 묘지 참배(오전 11시 동대문 운동장 출발)



인문대 학생회 선거 모토 소개글 <너를 만나면, 세상이 움직인다, PLAY!>

2005년 10월

그럼, 세상은 움직이지 않고 있나요?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문대만 보더라도 그렇죠. BK21에 따른 광역화로 전공 진입을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상대평가가 의무화되면서 같이 수업 듣는 친구도 라이벌처럼 느껴지게 됐고, ‘걷고 싶은 거리’ 사업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계단은 많아졌고, 또 지금은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포기함에 다름없는 국공립대 법인화 논의가 한창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그렇습니다. 청년실업 50만 명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모두가 대학에서 뻔듯한 취업 능력을 갖춰야하고,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 이전 시대 노동자들이 싸워 얻어왔던 노동의 권리가 다시 백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여성 상위 시대가 왔다고 하고, 그래서 들은 ‘극렬 폐미니스트’들은 잘못되

었다고 하기도 하고, 웰빙이 뜨면서 이제는 요가나 재즈댄스 등 멋진 운동은 한 두 개쯤 해야할 것 같기도 하네요. 세상은, 분명,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쫓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움직임

쿨함이 대세입니다. 남편의 바람에도 쿨하게 무덤덤하게 넘기는 멋진 아줌마, 정말 멋지죠, 만세. 무언가에 크게 집착하지도 않고, 적당히 너무 깊지 않은 인간관계를 잘 운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과도 별 상관없이, going my way. 이런 것들이 멋있고 세련된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순과 억압에 대해 더욱, 말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것에 상처받지 않는 자신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죠. 어쩌면 쿨함은 자기방어를 위한 중무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상처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야) 그런 쿨한 시대에도, 모순과 억압은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 보고도 덤덤히 넘길 수 있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무관심으로 포장된 그 감정은, 자기방어를 넘어, 세상의 문제들을 은폐합니다.

우리는 소통과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너를 만나면’ 탈정치화된 상태로의 개인간의 만남이 진짜일까요? 분명히 존재하는 남성-여성, 비장애인-장애인, 이성애자-동성애자 등등의 수식어들을 걷어낸 만남이? 쿨함으로 무장하고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한 수식어로, 그 모순과 억압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하(려)하고, 정말 당신과 이야기하는, 그러한 만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런 만남들은 세상과 조금 다른, 어쩌면 역행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

습니다. 그 방향들은 부유하는 개인들을 어설프게 묶어가는, 경쟁과 배제와 포섭의 논리에 가두어지지 않은, 새로운 방향일 것입니다.

함께합시다, play!

24대 인문대 학생회 선거에서 우리는 평등한 자유, 자유로운 평등이 전제된, 우애로운 만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눈감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움직이고자 하는, 그럴 수 있다는 희망으로 1동 자하연부터 14동 까지 인문대 구석구석을 채워나갑시다. 우리들의 유쾌하고 즐거운 play를 만들어 나갑시다.



인문대학생대표자회의 하반기 총노선

2006년 9월

*지면 관계상 일부만 축약해 실습니다

1. 2006년 하반기 정세전망

◇ 한국사회 정세전망

1) 신자유주의 정권의 위기관리 전략

신자유주의 안착화 시대 이후, 노무현 정권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를 공고히 해왔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중들의 삶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은 갈수록 불안정화되어 왔으며, 삶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자본과 이윤의 영역이 되었다. 한미 FTA를 비롯하여 APEC, WTO 등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으며 국민 대부

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위해 군부대를 동원했다. 정권도 인정하듯이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현실이며 비정 규직과 사회적 빈곤은 여성/장애인/이주민/학력 등 민중들 내부의 차이를 매개로 하여 더욱 더 심해져만 가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의 위기는 마치 여성의 잘못인 양 떠넘겨져 출산과 노동, 몸과 가족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4년차, 이러한 정권에 대한 평가, 혹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5.31 안타깝게도 지방 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민생파탄과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권이라는 표상이다.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망은 민중들에게 더 이상 장밋빛 미래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극단적인 폭력을 동원하여 민중들의 저항을 짓밟고, 또 한 편으로는 끊임없이 실제 민중들의 삶과는 관계없는 허구적인 쟁점과 대립구도를 던짐으로서 대중들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전자는 5월 4일 평택 강제 대집행 및 전용철, 홍덕표 열사에 이은 7월 하중근 열사의 죽음으로 극적으로 드러났다. 후자는 2003년 재신임, 2004년 탄핵, 4대 개혁입법, 2005년 행정수도 이전, 대연정 제안 등등의 쟁점을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통해서 ‘보수 vs 진보’라는 허구적인 대결구도를 설정하고 진보세력들이 마치 자신의 지지세력인 양 호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반을 구축하면서 위기를 모면해왔다.

2) 군사-금융세계화에 편입 정책과 한미 FTA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군사-금융세계화에 따른 세계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으며, 한미 FTA와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국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질서 개편에 적극적으로 조응하여,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평택 미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른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를 ‘자주/주권’이라는 허구적인 쟁점화를 통해 개혁적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권의 본질은 분명하다. 2009년으로 이야기되는 전시작통권 환수의 시기가 평택 미군기지가 건설될 2008년 이후라는 점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미군 기지 재배치의 맥락에서 미국의 전략상의 변화의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평택에서 또 다시 강제철거가 이루어졌으나 지킴이들과 마을주민이 맞서 싸워 몇 채의 집이나마 지켜냈고, 9.24 평화대행진 등 평화를 향한 움직임들은 계속되고 있다.

군사세계화의一面에는 금융세계화가 존재한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추진은 한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극대화된 사회의 위기와 모순을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로의 적극적 편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평택 미군기지 건설과 맞닿아있다. 한미 FTA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중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교육/문화/의료-들을 자본에 팔아넘기고 투기자본이 투자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동유연화를 감행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한미 FTA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만을 설파하며 한미 FTA의 체결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천명하고 있다.

3) 비정규직 확산과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개악법안이 여야 간의 합의 실패로 인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었

다.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 개악법안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비정규 개악법안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마다 해고하고 사실상 파견대상 업종을 네거티브로 설정하여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일반화하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마저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11일 타결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는 노사정 합의가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해 복수노조 허용을 팔아넘긴 격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확대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금지되어 있는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했다. ILO가 수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직권중재를 폐지한다는 것은 허울에 불과하다.

4) 여성에 대한 착취 강화, 새로마지 플랜 2010

현재의 저출산의 원인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여성의 빈곤화, 그리고 출산과 육아에 투여되는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 혹은 무급화 등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 의료 등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양육과 요양 등의 역할을 부담해온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치솟는 재생산 비용(교육, 양육, 의료비 등)에 반비례하여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가계 소득은 여성들에게 출혈적인 무급/유급노동을 강요한다. 신자유주의 정권에게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의 위기, 다시 말해서 자본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노동력과 산업예비군을 유지하는 것의 위기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작년부터 노무현 정부는 6월 8일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이라는 이름으로, 기간 제출된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을 추가결산하면서 2010년까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계획을 잠정적으로 확정·발표했다. <새로마지 플랜>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가 아닌 ‘지속적인 국가의 유지와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고려하고 있더라도 몇가지 출산 유인동기를 제시하는 것일 뿐, ‘소위 70%가 비정규직이라는’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가사·양육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가정에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오히려 강화하고 고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로마지 플랜’은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기보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출산의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육아 기간에 여성들을 더욱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차별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더욱 여성들을 부차적이고 불안정한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자체는 결코 ‘위기’ 혹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들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여성의 빈곤화 때문이다.

◇ 학생사회 정세전망

신자유주의적 교육 질서 재편으로 인한 광역화 및 학사관리 엄정화는 학생들을 배제와 포섭의 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가면서 학생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소위 ‘취업하기 좋은 곳’로 인원이 몰리는 현상은 광역화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광역화 이

후로는 실질적인 학과의 질적 발전과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 양성소로 변모하고 있는 대학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전공예약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전공예약제의 존재 자체가 광역화의 폐단을 밝해주고 있을 뿐이다. 대학은 자치와 학문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사고되고 있으며, 자치 활동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또한 49대 총학생회장의 탄핵과 부총학생회장의 사퇴 및 이에 따른 과정에서의 논쟁은 서로의 권리들을 마주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정치의 이전투구와 다를 바 없는 서로에 대한 비방과 감정적인 대립으로 오히려 정치의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다. 운동권/반권의 대립 구도를 강화시켜 ‘운동권’과 ‘일반 학우’의 권리가 충돌하는 것으로 대립시킴으로써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는 여러 문제들에서 극적으로 드러났다. ‘아크로 집회’를 통해 말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등록금 동결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권리’가 충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크로 집회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자보 논쟁은 학생사회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생사회 내부에도 사회 속에서 관계 지어진 다양한 위치 속에서 여성/남성, 장애인/비장애인, 서울/지방, 빈부격차 등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들이 ‘학생’이라는 호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합되고, ‘학생’으로서의 권리-‘학습권’으로 집약되된다-를 주장했을 때, 이것은 차이와 차별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기존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학우의 학습권에 대해 말하려면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학습권에 대해 말하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담론이 필

요하고, 학비가 없는 학우의 학습권에 대해 말하려면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정책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들을 ‘운동권’이라는 불명확하기 그지없는 개념으로 묶어내고 ‘일반학우’와 분리시켜낸다면, ‘일반학우’들이 주장하는 ‘학습권’이란 대체 무엇일까. 운동권/반권이나 학내담론/학외담론의 허구적인 이분법과 대립을 뛰어넘고 서로의 차이들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서로의 권리의 확장이 맞닿아 있는 논쟁과 소통을 기획할 때, 학생사회의 ‘정치’는 보다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생동감 넘치는 흐름으로 재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2. 투쟁방향

- 한국사회의 민생파탄과 정권의 무능이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임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이 무능한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지배계급에게 있음을 알려나가자!
- 미국의 동북아 질서 재편 전략에 따른 평택 전쟁기지 건설과 한미 FTA의 체결이 한국-동북아시아 민중들의 평화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폭로해나가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 조응하는 어떠한 반민중적 흐름과도 단호히 결별하자!
-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을 통해 민중들을 분할하고 기만하는 노무현 정권 위기관리 전략의 불가능성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자!
- 서로의 권리가 충돌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의 권리들이 맞닿아 확장하는 방식으로의 소통과 논쟁을 기획하며, 평등/자유/연대의 원리로 살아 숨 쉬는 대학사회를 복원하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낼 당신,
대중운동에의 힘찬 재도약을 준비합시다!

2006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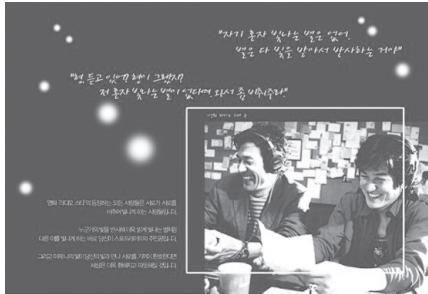
50대 총학생회 선거_선거운동본부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발신: 선본짱이었던 민영 / 수신: 주옥 같았던 선본원들

50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투표소 지키느라, 투표 독려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사적 좌파답게, 절망이나 희망을 속단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후를 계획합시다. 선거가 무산된 원인은 이후 더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이토록 차갑고 쓰린 무관심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를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선관위의 무성의함이나 다른 선본들의 노력 부족 등을 탓할 수 있겠지만, 무산이라는 결과는 선거 운동 자체에 대한 결과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7개의 선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낮은 투표율과 무산이라는 결과는 지금 관악 학생사회의 현실입니다. 정치가 불가능해지고, 학생회를 통한 집단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모색할 수 없게 되었고, 학생회의 표상이 정지해버린 2006년 겨울의 현실입니다.

선거 무산은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분석해왔던 대중운동의 위기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서프라이즈에의 지지는 단순히 ‘반권’ 정체성 때문만이 아니었음이 ‘반권’ ‘비권’을 내걸고 나온 선본이 많았고 이들 간의 차이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운동권/반권의 이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반권이 옳다/낫다’ ‘운동권이 옳다/낫다’ 등 의 논쟁은 그야말로 정념적일 뿐 실제 어떠한 생산적인 논의 구도를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운동단위들 역시 학생회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는데, ‘투명하고 통 큰 학생회’라는 이미지나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회’ 혹은 학생회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어떤 투쟁을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 채워졌던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으로 논쟁하는 고등학교 학생회 선거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 단선이나 선본이 등록되지 않은 단대 선거와 반대로 총학생회 선거에 7개의 선본이 몰린 현상들은 대중운동 단위로서의 학생회의 표상이 해체되고 희화화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우리의 조건들이고, ‘학생회 선거의 위기’가 아닌 ‘대중 운동의 위기’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이든, 선거 기간이 아니든, 선거에서 졌든, 이겼든, 그리고 무산되었든,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들과 실천이 다르진 않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대중 지형이 급좌익화 되거나 정치가 살아날 일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조건들과 구체적인 정세들 속에서 우리의 전망들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새터책(새짱), 반짱, 반 활동가, 단집, 단짱 등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대중운동에 대한 전망과 힘찬



살아숨쉬는 학생사회를 위해 SNU AGORA



이를 바탕으로 통과한 40대 활동가 출신 학장회장 단책은, 단행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사이, 서어 총학장과 출신 학장회장 단책이라는 데로 되어버렸다. 단행에 대한 명령권, 전체 학생회장과 차지권을 거쳐서는 논의 후 결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무상 생활은 한동안 빙울 끝에 풀어 놓게 되었다. 회의장은 차지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무상 생활은 아쉽다.

현재 반학생운영위원회,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등 학생사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학제화가 세력화되지 않고, 학제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를 기록에 미친 영향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인도적인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우리의 이야기를 수 있는 새로운 티켓을 펼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일상적인 논쟁과 실증적인 학제화에 고민하고, 대안적인 주제로 서서울 학제화에 참여하는 논쟁과 그 과정에서 학제적인 경계를 도출할 수 있는 저마다의 맛입니다. 이번에는 예술·생각·의사·정정·미술·논술·영화·음악·시에서 걸친 논부신 힘·세계·나마다·나를 찾는 우리 고장의 목소리를 모아 강정적인 내용을 속에 담아 놓았거나 고장의 이야기를 논부신

1000명의
학우들에게 서명을
제작한 바 있다.

AGORA
어떻게 운영되나요?

성실, 찬성과 함께 모두를 환호하는 너를 향해 **스포트라이트!**

했던 선거였습니다. ‘선거로 대중 이데올로기 지형을 바꿔낼 수 있을까? 학생회가 과연 이 시대에 알맞은 실천태일까?’ 하는 의문들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려진 답변, 운동에 있어 단 하나의 진실, 대중운동 위의 원칙으로 우리들의 방향을 결정합시다. 학생회 ‘만’이 유효한 운동의 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학생회를 통한 대중운동의 가능성들이 열려져

결의들로 이미 겨울방학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맞이 사업을 비롯하여 향후 1년간의 계획들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락이 아닌, 무산이라는 지금의 조건에서 우리는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역량과 조건들을 판단해야겠지요. 이 때, 우리의 질문은 ‘선거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서 대중 이데올로기를 가장 급진적으로 전화시켜낼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선거와 이후 논쟁들 속에서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한 부분들은 반성하며, 우리의 실천과 싸이를 속에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능한 실천태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실망도 하고 많이 아쉽기도

있는 상태에서, 가능성들을 우회하고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선거에 대응하는 것이 철의 원칙이지는 않지만, 49대 총학생회를 바라보며 역설적으로 느꼈던 ‘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가능성들에서 선불리 학생회 운동을 삭제하지 맙시다. 우리의 운동은 후보나 집행국 몇 명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의 결의와 실천이기에, 11월 한 달 정말로 절실히 열심히 살았던 동지들과 함께 2007년의 운동을 희망차게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개입불가’라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고립되지 맙시다.

우리의 운동은 언제나, 확장되어야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선본은 2007년 3월 재선거로 당선되었다)



신자유주의 여성 활용전략 반대! 여성노동권 쟁취! 페미니즘으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2008년 3월

〈100주년 3.8여성의날 투쟁 학생기획단〉 자료집

1997년 IMF의 구제금융 등을 계기로 ‘고개 숙인 아버지’와 같이 남성의 권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높아지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어머니가 대신하였다는 인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여권 신장이라는 담론들은 2005년 여성가족부가 생기고, ‘알파 걸’ ‘골드 미스’와 같이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여성 총리와 대통령 경선 후보가 나타나는 등 고위 공직에서도 여성들의 성공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여성 상위시대’가 등장했다는 진단에서부터, 최근의 불안정한 사회가 여성들 탓이라는 공격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현재가 정말 ‘여성 상위시대’일까요? 사회의 빈곤화와 실업이 증가한 것이 과연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세계 전체 소득의 10%. 전체부동산의 1%. 세계 문맹인구의 2/3.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세계 빈곤층 인구의 70%. 하지만 이것이 ‘여성상위시대’라고 하 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신자유주의 여성 활용전략 반대

신자유주의 여성 활용전략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 국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8년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보다 40% 증가한 10조 7천억 원을 책정하겠다고 할 정도로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위기에 빠진 가족을 구하고,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 려하는 캠페인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결혼 후 1년 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30대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는’ ‘123 운동’이 정책적으로 장 려된 것은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까요? 여성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독립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에 못지않게 사회경제적인 조건도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구제금융 이 후에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실행합니다. 이윤을 저하와 불황이라 는 위기 속에서, 자본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구조조정 프로 그램을 실시합니다. 한국사회는 실업과 저임금 노동 그리고 빈곤을 가져오게 되었 고, 민중들의 삶은 출산과 양육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락에 빠집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의 주요한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깊은 관

련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여성들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위기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를 보지 못하게 하고 불만과 불안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여성을 활용하는 지배계급들의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여성들에 대한 공격과 시기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라는 정념적인 주장/‘꼴페미’라는 비속어/군대에 가라는 이야기/된장녀-김여사에 대한 조소 - 들은 위와 같은 단면들을 드러내줍니다.

현재와 같이 여성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는 이유는, 여성의 가사와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자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불황은 여성들도 노동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가정을 유지하고 양육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파트타임/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 하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취급되면서 저임금이 당연시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여성 유망직종 발굴과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 취업연계 서비스 개발,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지원 확대 등을 통해 150만 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여성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맞춤형 일자리 제공해 줄게→열심히 일해라→(빈곤, 비정규직에서 탈출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제를 은폐하고 해결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만일 뿐입니다.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란,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파트타임 노동이거나 여성의 가족 내에서 해오던 ‘여성적인 일’들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일일 뿐입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여성전략은, 여성을 활용하여 위기에 따른 비용과 불만을 전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은 은폐되고, 수

다한 일들을 떠맡아야만 합니다. 신자유주의 여성활용 전략에 반대하는 3.8 투쟁 학생기획단을 만들어갑시다.

여성노동권 쟁취!

신자유주의적 여성 활용전략은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고 빈곤층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현실을 만들어 냈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이중부담을 강화했습니다. 2007년 시행령이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안은,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조건을 더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분노를 낳았고, 이에 저항하는 투쟁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매장점거와 타격/불매운동/연행과 거듭되는 투쟁. 사측의 해고와 무기계약과 노동조건의 개악에 맞서, 이랜드-뉴코아 여성노동자들의 싸움은 2007년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랜드-뉴코아의 여성노동자를 비롯하여, KTX 여승무원, 광주시청의 시설관리 노동자들, 기릉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2008년이 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의 야만성에 맞서는 보편적인 투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노동권은, 단순히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만을 위한 투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노동권을 전체 사회의 자신을 더 많이 차지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권리/특권으로 말하는 것은 왜곡에 불과합니다. 여성노동권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출산과 양육과 같은 재생산에 대한 권리로서 여성권,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자신들의 통제를 높여가는 노동권이라는 보편적인 권리들의 결합입니다. 좁은 의미로 여성노동권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고용관계에서의 차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성노동권은 또한 보편적인 해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가져오는 현재의 사회구조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바꾸어가는 권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의 해방과 노동의 해방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양자가 결합해야만 진정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여성노동권을 상징하는 이유는, 그녀들의 투쟁이 신자유주의적 여성 활용 전략과 불안정노동/빈곤화에 동시에 맞서는 투쟁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특히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여성 불안정 노동의 확산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복지는 곧 투자’라는 ‘사회투자국가론’이 주류 복지 전략이 되며, 육아/노인요양/간병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 2007년 4월에 시작된 이 제도는 이명박 정권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를 든 이런 사회서비스들은 ‘주로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하는 쉬운 일’로 저평가하는 인식이 있고, 정부와 자본은 이런 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여성 일자리는 주로 재생산 노동인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창출되고, 이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의 연장입니다. ‘가정 일은 쉬운 일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노동은 저평가되고, 여성들은 저임금/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8년 ‘사회서비스시장화’와 여성의 불안정 노동에 반대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중요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하며, 여성노동권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성노동자들의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불안정한 신자유주의를 넘어 보편적인 권리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페미니즘으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위와 같이 여성이 신자유주의 하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반격을 기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여성 활용 전략에 따른 여성들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여성에게 자기계발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학의 여학우들에게 더욱 강하게 영향을 줬고, 미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골드 미스’ ‘알파 걸’과 같은 성공한 여성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전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음에도, 대부분의 여학우들은 이에 공감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여성 가족부의 지원 하에 점점 늘어나는 여대생커리어센터는, 여성발전 담론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전에 여성운동 단위가 맡아서 하던 일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생리공결제는 여학우의 권리가 아니라, 정부의 권고에 의해 모성보호의 맥락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여성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통치가 아닌, 특정한 계층의 여성으로 상승하려는 여성계발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여성이 되는 것이 페미니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여성계발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빼뜨리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구조와 여성활용전략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리어 우먼이나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보편적 권리를 위한 여성들 간의 연대가 아닌 위계와 분할 그리고 경쟁을 가속화시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보편적인 통제권이 아니라, 여성 성공 신화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여성에게 계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이

중부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구적인 여성계발 이데올로기와 성공신화를 넘어, 진정한 여성의 자기통치를 위한 행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있고, 이러한 투쟁에서 신자유주의의 허구적인 여성 발전담론을 넘어, 여성의 보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진짜’ 페미니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배타적인 발전을 넘어, 여성의 보편적인 해방을 위한 진짜 페미니즘으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듭시다. 페미니즘으로, 페미니즘을 통해서만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합니다!



2005.09.27

퍼즐을 풀거나 게임을.

612리본
들어온 재구매
오토기습다

게임에서 -



부스에 와서



방학에도 주말에도 주말이고 참마는 참마고 수아는 수아다.

정신이도 여전인가



학번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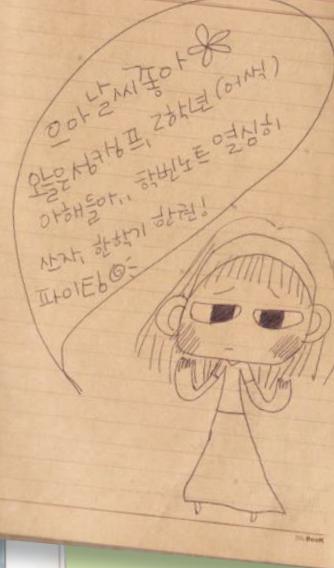
미학/모반 03학번들과 함께 쓰던 노트에서 발췌

〈교통학
학번모임의
진상〉
2005. 9. 12.



마침은데, 제방길 나왔다고 생각했으나, 자세히 보면 노출되었지 노이즈가 보여.
그래도 어쩌면지 마음에 들어서 학번노트에 올리고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더이상은 없구나. 사방의 (동양화가 생겨나게 하는) 깊은 문이든 구경하기
전 그만둔 복판지국을 가기로자.. 가기로 한 앤디..

morning glory





2005.5.2.

어제는 메이데이아이자 하늘아카데미(?)으로 만난인이었던 날.

모든 하늘아는 출연장에 갔겠지.

음워.

오늘 참 인상 재미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뭐 성큼하고 재미있는일 없나?

헬쓰 대처불가.

주차장이 3 일자인 우리언니는 집에 돌아와 유행의 서울을 써서 너무

이상했다. 언니가 아니라면 무시당하고—

침대동에서 200-300명의 드레스입는 사람들에게 고행았던

날이었나니—. 그치만 너무 3일짜리 너무 서울을 앙망,

날침대동 기본지도 예술도. 흐흐

어제 00학번 학번모임하는데 12명 왔다고 했다.

우리도 나중에 그걸까 많이 알수 있을까.

조금 1학년때 고방을 장식했던 크리스마스를 빛냈던 꽃들을 데려오네

기사가 뒤락에 쭉 박혔다.

(워낙 기억력과 애신면이 애정을 더해지면 떠나겠지)

그동시에, 학살을 떠의 이미지는 거짓—)

하얗. 두문풀 뒤면 시원이를 볼수있

는 많아 벼해있을까. 시원이는 아마

한양 대학교 시대였지—.

누처한 하얗다. "닭다"는데 내가 타기 전 보

관악에는 봄이었다—

각노마을 경리.

여름이 왔다 (아마도)

나들이 풍선다. 녹음이 우거

네명한 연두빛 나무들 앞들.

바다이고 보다. 와하. 죄를.

그치만 당장은 너무 피곤해서,

안락방 가서 만화보고

COMO에 가서 바이스코킹 머물

그렇게 두근거리고 보다.

시원이 짜장히 인고

자玷히 나를한 고방문,

그고 징발의 풍문은

사랑을 침으로 서정자로 만들

난 그렇게 서정자로 사랑은.

어느날은 그네 놀들이 한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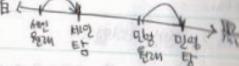
흘러내놓 거로 모를 만큼.

할지.

방법

하나다

aph



겠다.

그

그

다.

그는데.

↑
아니, 너 승인의 차이가 12%
모든 표를 투표하는 경우
(개표되는 표는 100%)
승인은 55%로
반대는 45%로
승인과 반대의 차이는 10%이다.

- 민족

미학/인간 2학기 번대 선거.

후보자 명단

송민영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표를 줘요~ 물어서 번대에게
한성실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들의 몸은 남아나지 않을 거
에요!

조효진 -

김현경 강특가 사람만들다

리주일 할 수 있다면 친선을 다하겠다!

즉석 추첨

김어진 -

이기찬 -

이혜정 -



총 투표율 = 75% 대만... 65%

<당선소감>

민영: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요 ~ 약을해요 ~ 소통의 곤을 놓지 말아요

모든 모반이라 할 수 있는 과반의 도전으면 좋겠어요.

2003년도 새터 때 ~~거울을~~ 치밀 ~~거울을~~ 다른 유익을 -----

성실: 더 많이 힘들게 좋아요. 무복임해지지 않으시다. 함께 해요~

117년 메이데이 유인물

매년 찾아오는 노동절, 청년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눈감지 않고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만든 실천단에서 송민영이 만든 유인물



전체 남한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 아니 '계약' 된다. 이 계약기간 내에 노동자는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정규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더라도 신체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힘들게 일해야 해도 짹소리 하지 못한다. 짹소리 했다간 곧바로 짤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견직, 계약직 노동자는 전체 남한 노동자 6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2007년 7월부터 알바생? 비정규법안의 개악(改惡)

작년 12월에 날치기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법안에 따르면, 파견대상 업종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업종이다. 이제까지 직접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들도 올해 7월부터는 해고된 뒤 계약직으로 전환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21세기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그저 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끔 될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권 만들려는가!

가자, 430 메이데이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와 생존권마저 무시하는 신자유주의 재편에 맞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117주년 노동절맞이 서울대 실천단 F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평화를 짓밟는 미국과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평화가 진정 평화입니까?

지난 4일 이후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정권의 탄압과 차별되고 있다. 대추리에서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원들은 군 경찰의 폭력과 정권의 기만 속에서 유태이지고 있다. 그/녀들은 어디에서 그렇게 빡우고 있는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단순히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가 좀 더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변화하고 있는 군사 확장 전략,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하여 사사 예상 강화하는데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2006년 1월 20일 1 차 원미 청관급 전략 대회에서 한 기관 외교 청관과 문화 대사 라이스 미국 부상은 “한국은 동방으로 서미국의 세세군사 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통성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략적 유통성을 강화하는 말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동북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전개되는 지구를 할 수 있는 기동 태세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에 따른 한국군의 군비 증강 역시 이런 책임이 있다”며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의 협약은 대두되고 있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평택은 원래 바다였던 땅을 둘고 개간을 한, 목숨을 걸고 만든 아련한 땅이다. 이땅을 처음 빼앗은 것은 일제였다. 1939년 일제는 이땅에 일본군 사설 대비행장을 건설했으며 사람들을 뺏어갔다. 그 이후 허전한 베주방이 있다. 역사는 계속된다. 대방 이후 미국이 미비행장을 짓수하고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과정에 미추리, 안평리 등의 주민들은 강제 추방되었다. 두 번째 추방이었다. 주민들은 지금도 미군 기지가 있는 월조암 나루를 구단에 리모델링 부른다. 어찌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렁개악법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53년째인 현재, 세 번째 추방을 눈앞에 두고 고통을 라며 싸우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중을 압박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은 그흐름에 적극적으로 조응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통성 강화라는 ‘대의 아래는 둥에 앉아 쓰러지는 평택 주민들은 별 것 아닌 존재’ 일지도 모른다. 민중을 압박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기를 들자, 폭력을 휘두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자.

평택 대추리에서도
서울 광화문 도아이보 앞에서도
매일 밤 촛불집회가 여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촛불을 함께 드립니다.



멈출 수 없는 변혁의 심장 24대 인문대학생회

평택 유인물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위해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며 만든 자보



가 ‘맘에 안드는 것’을 할 경우 사용
보험의 혜택을 못 받아도, 열악한 조건에
동인구의 60%를 넘어섰다.

모든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성이 높아
나다 재계약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권은 정녕 모든 민중들을 알바생으로

여성의

몸의 권리
찾나서는

FEMIN WEEK

9월 10~14, 학내 꼬꼬, 틸레이 차보전
생리공결제, 우리의 경험으로 풀어보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
권리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方が 진행됩니다!



9/10~14, 학내 꼬꼬, 틸레이 차보전

생리공결제, 우리의 경험으로 풀어보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 생리에 관한 간단한 Q&A 등 학내 여러 단체들과 함께하는 틸레이 차보전

9/11~12, 학관 앞, 설문조사+광장사업

생리공결제에 관한 설문조사와 함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간단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작은 선물도 드려요 많이 많이 참여하세요!

강연회 <여성의 몸+권리>

9/12(수) 7시, 15동 205호, 문은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기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재생산의 도구로 인식되거나 소유물로 여겨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와 억압이 가해져 왔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여성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 학생의 불꽃 50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2007 feminweek 포스터

총학생회 활동 당시, 여성의 권리 보장과
여성주의의 담론 확산을 위해 만든
기획사업 'Feminweek'의 홍보물



인문대 스프링스쿨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인문대학생회 교양 학교 기획 홍보물



“작년에는 첫 발을 뗄면서
“일단 모여보자,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이었다면,
올해는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야 한다는 부담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부담만큼 희망도 분명히 있다”

2010~2012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차장]











송민영은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차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대안 언론인 〈미디어충청〉의 현장기자로 활약했다. 바쁜 노동조합 활동 와중에도 3년 동안 195개의 기사를 썼다. 매주 1개 이상의 기사를 써서 충북지역의 노동자 현실과 투쟁을 알리는 데 힘쓴 것이다. 그 기사 중 네 개를 담았다. 나머지 기사는 미디어충청 홈페이지 (www.cmedia.or.kr)에서 송민영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120년간의 외침!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 120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 열려

2010년 5월 3일 〈미디어충청〉 기사

지난 5월 1일, 청주체육관 앞에서 120주년 노동절맞이 충북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에는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 정당 등 약 2000명이 참가해, 전날 밤의 근로시간제심의위원회 날치기 통과와 대대적인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이에 맞선 상반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MB정권은 노동자 농민 빈민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있다”며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과 6.2 선거 투쟁을 우리의 승리로 이끌자”고 밝혔다. 전날 밤의 근심위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이를 격파하

고, 2010년 하반기 투쟁까지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기계로 본다”며 “말만 사장이지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한다”고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29일 도청 집회를 시작으로 각 권역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 전하며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엄호해 달라”고 전했다. 박찬민 청주MBC 지부장은 “파업 27일째를 맞고 있다”며 MBC 파업 경위와 상황을 설명했다. 권철호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명박은 경제 살리겠다며 대통령이 돼서 가진 자, 힘있는 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을 말살 하는 게 재벌 살리는 길이다”고 폭로했다. 김선태 공공노조 충북 본부장은 “공공부문을 수익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바꿔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공공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함을 촉구했다.

정부로부터 강력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사회참여위원장은 “공무원 노조가 정부 정책 반대, 비판한다고 노조를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연근무제’를 통해 공직사회를 비정규직화 시키려 한다”며 “이는 노동자 삶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규탄했다. 또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큰 기치로 삼고 있음을 전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조합원 명단 공개가 “지자체 선거 앞두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가 ‘전국 최상위’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며 “멀쩡한 아이를 장애학급으로 보내고, 단체로 커닝 시켜 만든 점수다”고 폭로했다. “전교조가 재벌 자식이든 노동자 자식이든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MB가 없애려고 한다”고 밝히고 전교조 사수투쟁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충북지회 노래패, 충북 노동자 몸짓패 ‘여명’, 전교조 충북지부 노래패 ‘당찬’의 공연이 이어졌고, 진보정당들이 6.2 선거 승리의 의지를 다지기도했다. 마지막으로 범국민 4대 과제 22대 요구를 선포하고, ‘MB정권’이라고 쓰여진 얼음을 깨는 상징 의식을 진행했다.

집회에 이어 청주체육관에서 충북도청까지 행진하면서 “노조탄압 분쇄하자”, “민영화를 중단하라”, “근심위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5180원 정취 민주노총 투쟁선포식 열려

2010년 5월 20일 〈미디어충청〉 기사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0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 중이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투쟁을 선포하는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민주노총 안에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다. 단위별로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함께 최저임금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5180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정해경 공공서비스노조 청주대분회 사무장은 “물가가 15~50% 올랐는데 고작 2.7%인 110원을 올리겠다고 한다”며 “물에 밥말아 김치만 먹고 살란거냐”고 비

판했다. “(현재의 인상안은) 문화생활을 즐기지 말라는 말, 가난을 자식들에게 되물림 하라는 말이다”며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규탄했다. “일주일에 두 세 번 고기먹고, 한 달에 한 번 영화보고, 1년에 한 번 국내여행이라도 가고 싶다”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투쟁선포문을 발표했다. 투쟁선포문을 통해 “경제성장률은 상향조정하는 와중에 최저임금 동결은 말이 안 된다”며 “저임금노동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시간급 5180원은 결코 과도한 액수가 아니다”며 “모든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백규 진보신당 충북도지사 후보, 차순애 민주노동당 청주시의원 후보, 윤남용 사회당 청주시의원 후보, 이향숙 진보신당 비례후보가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김백규 후보는 “GNP 500달러 시대에 최저임금 5000원을 요구했는데, GNP 2만 달러가 된 지금도 최저임금 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전했다.



“노조 가입 해고 너무해” 한마디에 해고

청주시 노인병원 부당해고 철회 집회
“각종 부당노동행위 청주시 책임있다”

2011년 7월 22일 <미디어충청> 기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는 22일 3시 효성병원이 운영하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청주시 노인병원 간병인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다 지난달 노조에 가입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냈고, 용역업체인 (주)하영테크는 노조의 교섭 요청을 거부했다.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는 용역업체가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해고 협박, 차별 대우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재진 의료연대 충북지부장은 “간병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 최저임금 달라고, 근로기준법 지켜달라고 노조에 가입했더니 해고시켰다”며 “간병노동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원만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8명 중환자를 24시간 돌보고 110만 원 월

급 받는 게 과한 거냐”고 반문하며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은 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옥자 씨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노조에게 우호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팀장이 와서 ‘누가 노조에 가입했나. 가입한 사람들 다 해고하겠다’고 하기에 그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한마디 했다. 계약 만료일에 팀장이 내일부처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단칼에 자르는 비인간적인 업체와 시립병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의 진보정당도 함께했다. 신장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한 범덕 시장은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야한다”고 촉구했다. 윤남용 사회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간병노동자를 회사가 탄압하는 이유는 이 싸움이 민주 노조 사수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도승근 진보신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청주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시민을 위해해야 한다.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간병인, 나아가 시민들의 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효성병원과 하영테크는 노조를 왜해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담당하는 병실의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기고, 병실이 비었다며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간병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생계를 책임지는 50~60대의 간병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죽음이다”라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학교비정규직

“진짜 사용자 이기용 나와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단투 출정식...
도교육청우 교섭 거부

2012년 5월 8일 <미디어충청> 기사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4월 4일 연대회의는 충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에게 2012년 단체협상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명시한 바 있고, 또 이를 충북교육청 상대로 지도감독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기용 교육감은 4월 18일 “학교장이 교섭의 주체”라는 공문을 회신하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연대회의 측은 “명백한 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며 이기용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그마저 거부했다.

이처럼 충북도교육청이 면담까지 회피해가며 교섭을 거부하자 충북학교비정

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4월 27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임단투 출정식을 열였다. 이날 참석한 4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기용 교육감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가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기용 교육감은 교섭을 거부할 명분 없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한다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연대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라 밝히고 “그동안 학교 곳곳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온 온갖 설움과 차별이 분노가 되어 우리는 한데 뭉쳤다. 2012년 임단협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연대회의는 도교육청에 재차 이기용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현대차그룹이 나선 민주노조 파괴 프로그램

『사회운동』 2011년 7-8월호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충북의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제조업 사업장의 활동가들이 공공연히 “유성처럼만 하자”며 목표로 삼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탄탄한 조직이다. 법에 따라 시행되기 2년 전에 단협을 통한 주5일제 시행, 파업지침을 단한 차례도 어기지 않고 수행하는 것, 질 나쁜 체육복을 좋은 것처럼 속여 제공한 사측에게 사과를 받아낸 일 등 쓰려면 끝이 없는 숱한 모범사례와 통쾌한 무용담도 인상적이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당당하고 때로는 담담한 조합원들의 태도는 (투박한 문구로만 여겼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을 배출한 사업장이기도 하고,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깝지 않은 영동에서 청주까지 달려오는 덕에 더욱 각별한 마음이 드는 그런 곳이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 어긋나도 공권력 투입 강행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관한 특별교섭에 들어가면서 ‘사측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들려왔고, 급기야 2시간 부분파업에 사측이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쌍용차 등 대표적인 금속 사업장이 하나 둘 깨져가는 것을 보아왔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노조의 발 빠른 대응은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어그러뜨렸다. 사측이 다급해진 와중에 용역이 인도에 있던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뻣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분노한 조합원들은 모두 충남 아산으로 모여 공장 점거에 들어갔다. 물량이 많이 남지 않았고, 생산라인은 멈쳤고, 공권력도 투입될 명분이 별로 없는 등 노조에게 유리한 국면이었다. 승리가 멀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공공사업장도 아닌 일개 사기업에 유례없이 빠른 공권력 투입이 이뤄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조를 비난하는 연설을 해댔다. 이후 노동부 관계자의 ‘현대차가 피해를 과장해 공권력을 투입했다. 속은 느낌이다’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대차그룹이 실제 노조 파괴 공작의 지도부라는 의혹이 확인되었다. 정부와 자본의 공생관계야 뻔하다 뻔한 것이지만,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청와대는 물론 현대차그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청구조가 만연한 한국 산업구조에서 많은 노조에게 협박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대기아차, 하청사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이유

유성기업은 결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간당 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있다. 하루에 43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하청부품사인 유성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용역 인력비도 하루에 몇 천 만원이 든다. 유성기업은 왜

이토록 비싼 값을 치러가며 노조를 파괴하려 할까?

배후에 정권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된 노조파괴 문건의 한 페이지는 현대기아차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다른 페이지와는 달리 유독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된 그 문건은 유성기업에는 없는 부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유성기업의 노사합의가 현대차 기아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현대차 이후 시행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발레오 사례를 맹신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현대차가 생산중단을 각오하면서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이유는 예상이 가능하다. 현대차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으리라. 많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 기회에 유성기업 노조를 깨는 게 이익인지, 유성기업을 시작으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허용해주고 하루에 공장이 8시간 동안 멈추는 게 이익인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부품사의 생산계획 뿐 아니라 노동시간, 근무제도에까지 개입하려 든다. 재벌 대기업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노조에 직접적으로 칼날을 들이댄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싶다는 소박한 꿈

심야노동을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2009년에 이미 노사 간 합의된 내용이다.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열 번이 넘는 교섭에서 사측은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요구는 몇 년 전 동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도에 영동공장에서 동료 한 명이 통근버스에서 목숨을 잃었다. 주간연속2

교대제를 합의한 2009년 이후에도 아산공장에서만 5명이 돌발사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 편하게 일하겠다는 배부른 요구가 아니라, 죽음과 사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유성기업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뿌리고 다녔던 마타도어 중의 하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임금을 저울질 하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낮은 기본급과 시간제 임금제도에서 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팔아가며,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낮은 기본급과 임금체계는 자본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준다. 호황기에는 임금체계를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고, 불황기에는 임금체계를 줄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기본급 인상을 통해 임금체계를 혁신하는 급진적인 요구다.

민주노조 말살 프로그램을 멈추자

5월 24일, 공권력이 투입되어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끌려나오는 장면은 결코 패배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며 잔뼈가 굵은 유성기업지회는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결코 잃지 않았다. 남행열차를 부르며 경찰차에 올랐다. 연행되어 조사받을 때도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풀려나자마자 조합원들은 아산공장 앞으로 또 다시 집결

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조직력이라면 남부럽지 않던 발레오만도 도 깨쳤고,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 파업을 공격했다. 현대차의 엄살로 공권력이 빠르게 투입됐다. 상대가 유성자본 뿐이라면 모를까, 일개 지회가 거대한 현대차그룹과 정권을 상대로 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은 ‘파업-직장폐쇄-공권력투입-노조파괴’로 이어지는 정부와 자본의 노조말살 프로그램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승리의 첫 사례가 되어야 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승승장구 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에 맞서는 승리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투쟁은 지회, 지부를 넘어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 민중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유성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조의 생명과 자존심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단결과 연대가 노동자의 생명

6월 14일, 지회는 일괄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귀에 맞서다 같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출근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5월 18일 직장폐쇄로부터 한 달이 되는 6월 18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최의 결의대회와 진보정당, 단체들이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한 달 넘게 현장을 떠나 공장 앞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내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생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끼 밥값도 만만치 않아 믹스커피 살 돈도 없어서 믹스커피를 후원받는 희망커피운동까

지 벌일 정도다. 극한의 상황까지 몰린 것은 노조도, 유성자본도 마찬가지다.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얼마 전 작업 중 부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용역을 고용하고, 망루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입구를 막았다. 18일 집회 도중 용역이 던진 소화기와 돌이 집회 대오를 향해 날아올 정도로 노-사 관계는 긴장이 극에 달해있다.

공권력 침탈 직후 공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의 문구가 기억난다. “지회는 지난 20여 년의 노조 역사상 단결과 연대를 노동자의 생명으로 알고 투쟁해왔습니다. 이랬던 저희들의 투쟁이 진실이었음을 전국의 동지들이 증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온 유성기업지회에게 우리가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유성투쟁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있다. 매일 아침 공단 입구 선전전, 경찰청 앞 1인 시위, 현대차-기아차 지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기 별 청주 시내나 아산공장 앞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의 사업장들도 임단투로 바쁜 시기지만 여력을 모아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힘쓰고 있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 충청권 뿐 아니라 금속노조,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력 있는 싸움, 현대차-기아차의 연대투쟁 등 활로를 뚫는 투쟁이 절실히 한다. 대통령과 현대차그룹이 나섰다면, 이쪽에서도 그에 걸맞은 연대투쟁의 태세로 맞서야 한다.

쉽지 않은 여성사업, 하지만 희망은 있다!

『사회운동』2012년 3-4월호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활동하면서 두 번째 3.8 여성의 날을 맞이한다. 사회단체, 정당, 여성단체와 함께 기획단을 꾸려 여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기념하는 여성의 날이 아닌 투쟁하는 여성의 날, 투쟁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주인공이 되는 여성의 날 사업을 고민 중이다. 여성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그동안 진행한 여성사업을 돌아보며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처음 여성사업을 맡게 되면서 느낀 점은 막막함이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여성위원회가 없고, 여성사업 담당이 있는 사업장도 거의 없다. 그나마 몇 명 되지 않는 산별이나 단위노조의 여성위원장, 여성부장도 전임이 아니라 활동이 어렵고 여성사업도 사업장 내 여성조합원 대상의 복지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3.8 여성의 날을 빼면 여성사업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산별연맹 지역조직은 몇 명 되

지 않는 상근자들이 조직, 총무, 선전 등 대부분의 실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상근자가 여성사업까지 고민할 여력이 많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여성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실행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막막했다.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비정규직의 증가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압박으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많이 벌어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그나마 여성사업의 출발점이 됐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와 함께, 여성사업에 의지가 있는 몇몇 여성 간부들과 빨맞춰 소박하게 여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2011년 여성사업, 활기찬 시작

2011년 3.8여성의 날 투쟁은 이전에 여성의 날 투쟁을 진행해왔던 노동조합, 사회단체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시작했다. 사전행사로 현장의 조합원들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여성노동자 이야기마당’을 진행했다. 총장실 점거 투쟁의 ‘원조’인 청주대 청소노동자, 특수고용의 대표적인 직종인 간병노동자, 각종 수당·휴가도 챙기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끈질긴 투쟁으로 시설폐쇄를 막아낸 충북희망원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노동조건 뿐 아니라 노조활동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최초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야기,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와 투쟁 에피소드 등을 나눴다.

여성의 저임금과 비정규직화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여성사업 현황과 실태도 점검했다. 여성의 과소대표성과, 권위적·가부장적인 노동조합 내 문화, 성희롱 예방교육에 그치는 천편일률적 교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3월 8일 당일에는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진행했다. 청소노동자들의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공연과 충북희망원 조합원들의 몸짓공연, 빵과 장미를 상품으로 건 퀴즈 코너, 희망나무 만들기 등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날의 의의를 공유할 수 있었다. 여성의 날을 전후로 몇몇 사업장에서 기조와 주요 요구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여성의 날 사업을 진행한 이후, 이 성과를 놓치고 가지 말고 ‘뭐라도 하자’는 의지로 릴레이 여성사업을 기획했다. 4개의 릴레이 사업을 기획했으나 실제로는 2개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첫 번째 사업은 YH노조 투쟁 당시 지부장이었던 최순영 동지의 강연. 노조 결성에서부터 신민당사 점거까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으며 여성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사업은 괴산 산막이 옛길 애유회. 당시 투쟁 중이었던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간병노동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막걸리에 젓가락 두드리고 노래도 곁들이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여성조합원 간의 친목과 단결을 다지는 좋은 계기였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 투쟁이 벌어졌을 때, 여성노동자 투쟁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화이팅! 여성노동자’ 사업을 기획했다. 시립 병원이라 청주시청 앞에서 매일 출근 선전전을 했는데, 여성노동자 간 연대를 만들고 여성노동권 투쟁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화요일마다 여성활동가들이 출근선전전에 결합했다. 해고 투쟁이었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목표로 수탁업체와 하청업체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여성노동권을 강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 대부분 고령의 여성인 간병노동자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처하게 되는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돌봄노동, 여성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를 풀어내고자 소식지를 발행했다. 출근선전전에 결합하는 소소한 사업이었지만, 여성사업이 투쟁사업과 분리되어 여성조합원을 대상

으로 한 사업이 되기 쉬운데, 여성노동자 투쟁과 함께 가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 뜻 깊었다.

또한 여성단체들과 함께 청주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응했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고 과거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음에도 요직에 오를 수 있었던 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조사관의 2차 가해성 발언, 청주시 공무원들의 가해자 구제 서명운동 등 공직사회의 뿐리 깊은 문제가 드러났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지적되어야 했지만, 가해자가 워낙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징계 요구가 우선의 목표가 됐다. 민주노총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성희롱은 노동권의 침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쟁에 결합했다.

그 밖에도 지역본부의 주요 교육사업인 ‘현장활동가 맞춤교육’에서 여성노동권을 주제로 한 강좌를 열었고,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여성사업, 쉽지 않다

1년 동안 여러 여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움도 남고 뿌듯하기도 하다. 함께 했던 동지 중 한 명이 ‘여성사업은 의지 있는 2~3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바꿔 말하면 현재 노동조합에서 여성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의지 있는 2-3명이 모이기가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이 여성의제를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있다.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남성 간부들은 여성사업을 여성조합원 대상의 사업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우리는 다 여성이라 별도의 여성사

업은 필요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곤 한다. 지금까지 여성사업을 진행하는 데 임원들의 인식과 의지가 크게 도움이 되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임원, 간부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

‘여성노동자 이야기마당’ 때 지적되었던 것 중 하나는 여성의 과소대표성이었다.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도 절반가량은 대표가 남성이었고, 남성이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그야말로 손에 꽂았다. ‘여성들이 잘 나서지 않는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일면 맞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당하다. 퇴근 후에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의 협조가 없으면 간부를 맡기 쉽지 않고, 여성이 대표성을 갖기 힘든 조직 문화가 존재한다. 여성간부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여성간부 육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남성들은 술자리에서 인맥이나 친분을 쌓는데, 여성들에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성조합원들끼리 자주 만나 친목을 쌓고, 교류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는데, 여기서 생기는 딜레마는 ‘여성조합원’을 강조하다보면 남성들이 참여하기 어색해지고 여성사업은 여성들만 참여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진행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가도록 임단협, 투쟁, 일상적인 사업에 여성노동권의 문제의식을 녹여낼 기획이 필요하다.

총연맹 여성위원회에서 각 노동조합의 여성노동권 관련 임단협 내용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힘 있는 노동조합을 제외한 신규사업장이나 비정규직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 등 여성들이 겪는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임단협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나감과 동시에, 각종 투쟁과 밸맞춰 가는 ‘화이팅! 여성노동자’

와 같은 기획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겠다.

부담, 하지만 희망은 있다!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충북지회 여성조합원 교육을 진행하는 도중, 타임오프제로 인해 힘들게 확보한 여성조합원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총연맹 여성위원회에서도 타임오프 때문에 전임이 줄어들면서 여성 사업 담당자들이 복귀하게 되어 여성사업을 진행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오간다. 노조탄압으로 노조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투쟁으로 얻은 성과마저 빼앗기는 와중에 여성사업도 더욱 위축되기 쉬운 조건이다.

작년에는 첫 발을 떼면서 “일단 모여보자,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이었다면, 올해는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야 한다는 부담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부담만큼 희망도 분명히 있다. “에휴, 마이크 잡으면 떨려서 말 못해”라고 뒤로 빼던 여성조합원들이 정작 마이크만 잡으면 봇물 터지 듯 청산유수 이야기를 풀어내던 순간을 기억한다. 가부장적인 한국에서 여성으로,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쌓인 게 꽤 많았을 것이다. 올해 여성의 날 사전행사로 진행된 ‘여성노동자 이야기마당’에서 여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순간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투쟁이 여성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여성사업을 시작하는 희망의 첫 발걸음이다.

*〈학비가 너무해!〉는 송민영이 충북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첫 파업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사연을 모아 만든 네컷 만화로 파업소식지에 연재되었다.





송민영

2011년 7월 30일 · 목

요새 농성장에서 애기들을 많이 보는데. 엄마아빠를 절묘하게 닮은게 신기하기도 하고 쪼그만거 자체도 신기하다. 나도 저렇게 쪼꼬았는데. 이 시절의 나를 생각하게 기억할 엄마아빠는 지금의 날 보면 어떤 기분일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장진범, Milo Red, 최윤정님 외 8명이 좋아합니다.



송민영님이 재희님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2011년 7월 24일 · 목

어제 저녁 한끼 굶었을 뿐인데, 오늘 매운 음식 먹었다고 속이 뒤짚어졌다. 하루 단식하신 우리 임원분들이나 20일 넘게 곡끼를 끊은 유성기업 이재윤 등지, 10일 넘어가는 민주노총 위원장님, 노회찬 심상정 등지 등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아파하는 내 몸이 부끄럽기도 민망하기도 하다.

안굶고 안아프고 건강하게 투쟁해야하는데. 몸도, 마음도.



재희

2011년 7월 23일 · 목

희망단식중인 민영언니! 솔직히 치킨과 족발등등의 유혹을 뿌리치겠다는 표정 솔직히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이승하 힘내자!!!

2011년 7월 24일 오후 5:17 · 좋아요



itsmySong

192주



♡

Q

↗

ryuzeh, redzeppelin69

itsmySong 아끼는 테이블이자, 오늘 화분 흙도 갈아줬다 :)

댓글 2개 모두 보기



6월 15일은 최저임금 쌈 싸먹는 날

최저임금
쌈싸먹자



청주대 총장님,
같이 밥 한끼 먹읍시다!

오는 7월 1일, 청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어김없이 새로운 용역업체 사장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 칼로 들어오는 용역업체와 고용승계·임금인상·노조인정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작년 7월 1일 복수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교섭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12년은 새해 벽두부터 터무니 없는 해고통보에 임금체불까지.. 힘겨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진짜 사장인 총장님 얼굴은 한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청주대 총장님! 같이 밥 한끼 먹읍시다.

청주대에서 십년 넘게 함께 일해온 식구끼리 따뜻한 밥 한끼 먹으며 이야기하면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은 쌈 싸먹어 버리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임금과 해고 걱정 없는 일터, 밥 같이 먹으며 이야기해봅시다.

6월 15일(금) 12:30 + 청주대 본관 앞 잔디밭

한진에는 희망버스 유성기업에는 희망커피!

직장예체에 맞서 한 달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유성기업지회.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밥 한끼 먹는데 드는 돈도 이미 어마에서
커피는 꿈도 못꾸고 있답니다.
더위에 지쳐서 투쟁이 힘들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조합원들의
영의가 이어지지만
커피를 제공하기에는 바탕지 않은 상황.
유성기업지회에 현내의 힘을 보여줍니다!



****참여포**, 커피아이스 모두 환영 조합원 수가 많으니 찬 커피아이스를 추천!
****아름다워**에 치킨 조합원들을 위해 아이스커피아이스 보내주는 선스!
****나를모아** 대전 단한 봉지도 엄청 많아 환영합니다!

커피 밭는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69 조선영농 조합법인
문의 twitter @kctclub phone (043) 234-9595

****커피**를 보내주시면 때 인증샷을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노동조합 선전, 인터넷으로 쭉쭉 뻗어나간다!

민주노조 활동가를 위한 SNS교육

다자, 소마트포로 노동조합 선전하기
SNS 활용해 노조의 소식을 전하고 여론을 만들자



일시 및 장소 2012년 4월 25일 (수) 19시, 본부 회의실

대상 연맹, 단원노조 전임자, 활동가 (선전포상자 필침),
현장활동가 및 총교육 수강자, 관심 있는 조합원.

준비물 스마트폰, 노트북

시간표 19시~20시 총질교육

20시~21시 트위터 교육

21시~22시 블로그운영 및 트위터 연동 교육

* 교육참가자들은 시전에 트위터에 기록하여 칭가 바랍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011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충북문화제

청소노동자 이정소니에게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

지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

내 아이의 성장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며 푸르히 일하는

초등생을 사랑해 이시작자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라는 당신



충북대민 병원에서 일하는
강당노동자 김시희님에게도
노동임금과 고도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

당신과 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리'가 함께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만들면 갑니다.

2011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충북문화제에서 초대합니다!

일시 2011. 12. 21 (수) 오후 8시

장소 민주노총 충북본부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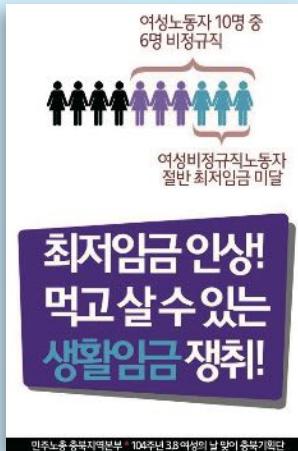
주최 최저임금 인상 생활민감집 청취 충북 금대원

1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문화제 2부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손년의 밤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Tel) 043-234-0965 Email) iga22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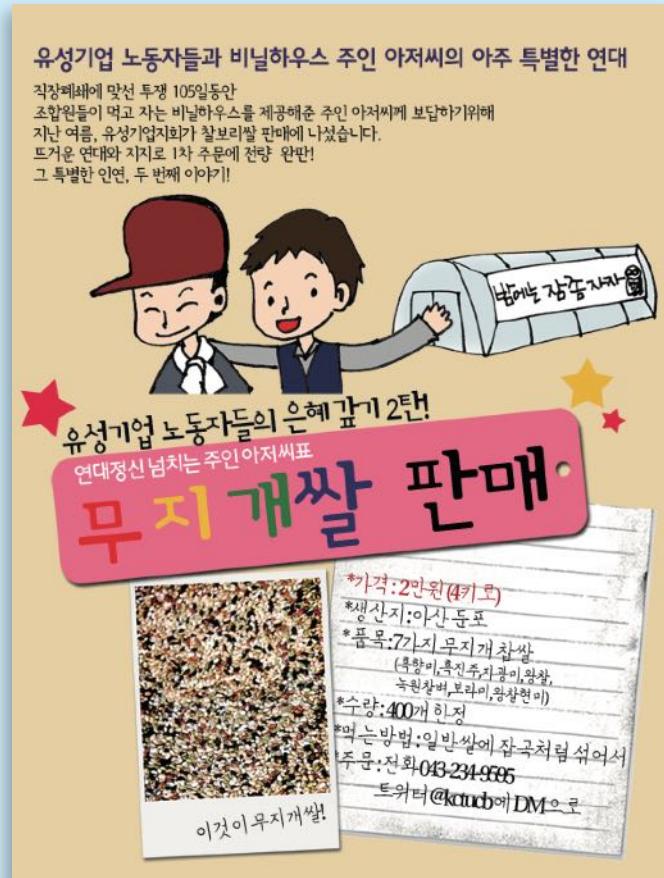
충북여성, 희망을 말하다! 2012 □를 약속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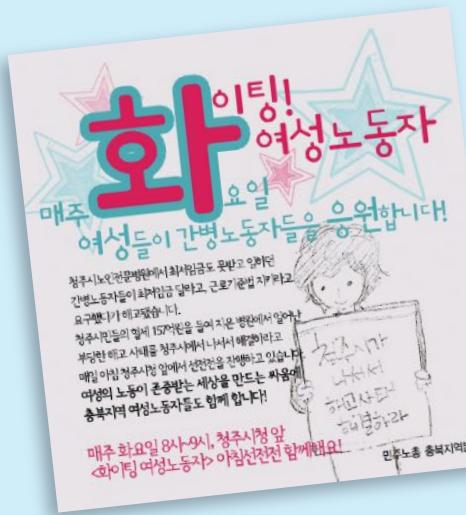


-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권 강화
- ★ 성희롱 성폭력 근절
- ★ 양성평등 정책 추진
- ★ 여성의 정치 참여 강화
- ★ 비정규직·여성장애인 모성보호 강화
- ★ 성평등하니 도시가 단축 생활이up 재밌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104주년 3·8 여성의 날 맞이 충북기획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정체! 를 위해
함께합시다!**

1 노조법전면개정! 투쟁사업장문제해결!
최저임금인상개선 생활임금보장!
노동부 규탄 지역 집중투쟁

일시/장소 5월 11일 (수) 11시 청주고용노동청

2 노동기본권 확보! 생활임금 정체!
2011년 차별철폐대행진

일시 5월 12일(목)~14(토) 오후 5시~6시 반
장소 청주 철당간

생활임금쟁취 충북공대위

여성대통령 시대?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 탄생!
이제는 여성도 장관, CEO, 침체에서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시대!
이제는 빨리 살용방지 않아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될까?

그래도 여성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여성노동자는 해고 1순위!
여의한명 기록내부
부른 24억 원
상수, 충북 부암 노동자 철학자 민족인
나는 노동자
힘들고 사는 일자리에 내몰리

105년 전 하루 16시간이 아닌 8시간만 밥하게 해달라고, 여성도 누워있기 허락되기 허락되거나 와파였던 여성들, 오늘날 정규직은 부록에 그려 막혀 싸우는 여성들을 기억하며
105주년 3.8여성의 날을 맞아 충북시민 여성노동자들이 요구합니다!

충북시민 칭소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금고보육기관 확대! 출산·산수조리 지원 조례 제정!
종교교육성 교과 비정규직 노조·장성설교교섭 투쟁!
여성노동자 권리 후퇴시키는 노조탄압, 노조파괴 종단!

105주년 3.8여성의 날 맞이 거리전선 3월 5일(화) 16시, 성안길
여성·동성·아동·여성·마마당 3월 5일(화) 18시 30분, 청주노총 충북본부 회의실
충북여성노동자 권리행취 결의대회
3월 8일(금) 1시, 청주 소수수공지
* 충북여민행사에서 충북노동당원들과 진행합니다.

105주년 3.8여성의 날 3월 8일(금) 9시, 서울보신각



“좌충우돌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뿌듯하다. 나조차 잘은 몰랐던 부분에서,
내가 믿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혹은
고군분투하며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구나,
하는 기분이 들고. 여전히 답답하고 불투명한 미래지만
그래도 살아볼만 한 것 아닌가.”

2013~2015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민주노조의 새로운 희망은 어디에서 짹트는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과 전략조직화

2014년 3월 13일 <참세상> 기고

3월 3일, 여러 대학과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주차노동자들의 파업 소식이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소속의 고려대, 고려대 안암병원, 경희대, 연세대, 연세재단빌딩, 이화여대, 서강대 등 14개 사업장 조합원 1600여 명이 집단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여러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고, 파업도 함께 들어갔다.

작년 말 청소노동자의 손자보와 ‘대자보 하나 당 100만 원 벌금’ 논란으로 잘 알려진 중앙대 청소노동자들도 서경지부 소속이다. 작년 가을, 중앙대분회 출범식에서의 인상적인 기억이 있다. 서경지부 각 분회의 분회장들이 중앙대분회 출범을 축하하며 발언을 하는 순서였다. 열댓 명이 넘는 분회장들이 앞에 쭉 늘어서서 발언을 이어갔는데, 고려대분회 등 몇 개 분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3년 미만이고 짧게

는 지난 주 출범한 초짜 분회들이었다. 4일 전 출범식을 진행했던 서강대분회는 ‘4일 만에 막내 탈출이다’라며 새로운 분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2009년부터 진행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은 공공노조 1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진행됐다. 노조 외에도 사회단체, 학생들이 함께한 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서경지부 소속의 청소노동자들과 캠페인단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옆 대학, 다른 건물을 방문하며 노조를 조직했다. 놀라운 조합원 수의 증가, 집단교섭과 투쟁은 이러한 조직화 사업의 성과로 이뤄진 것이다.

생활임금 쟁취 투쟁에 앞장서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따내고, 또 다시 새로운 조합원을 조직하고, 지부 집단교섭을 통해 사업장을 넘어서 여러 사업장의 공동의 요구와 투쟁을 만들어내는 서경지부 조합원들의 대다수는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이 시대에 서경지부의 투쟁은 고령 노동시장의 노동조건과 처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노조 안에서도 더 이상 ‘불쌍한 여성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가 아니라, 전략조직화를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새로운 전망을 만드는 대표주자로 설 것이다.

민주노조의 미래는 조직화에 달렸다. 노조 조직률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고, 기업들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이 등장할 정도로 갖은 수단을 동원해 노조를 깨부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에서 추진되는 전략조직화 사업은 여러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니라, 민주노조의 명운을 건 한 판싸움이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서경지부의 파업투쟁은 곧 승리의 소식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것은 서경지부의 승리만이 아닌,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리라 믿는다.



송민영

2013년 9월 27일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만들었어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 출범식!

하루 12시간 일하는 곳은 중앙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조 짱짱하게 만들고 투쟁해서 8시간 노동 쟁취하고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기를!!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조직화 경쟁을 넘어 질적인 도약을!

노동자운동연구소 워크숍

〈학교비정규직 운동의 과거·현재·미래〉

『오늘보다』 2015년 4월호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노조 조직화 성과를 내고 있는 직종은 어딜까? 단연코 몇 손가락 안에 학교비정규직을 꼽을 수 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학교비정규직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망과 방향을 토론하고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실장은 학교비정규직 운동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담은 <학교와 노동운동>을, 이진우 연구원은 <학교비정규직의 현장투쟁 활성화 전략: 노안 의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은 교육공무직본부의 역사와 현재 쟁점에 대해 토론했고,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문설희 조직국장은 학교비정규직 운동의 강화와 지역운동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활동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성공적인 확장과 변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교직원 중 약 43퍼센트를 차지하며, 40만 명에 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많다. 조리사, 영양사, 사서, 사무, 강사 등 5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여성노조와 공공연맹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시작해 80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생겼고, 2010년대에 들어 진보교육감 당선의 정세를 타고 7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공공운수노조, 전국학비노조, 여성노조 등에 속해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교육공무직제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과 해고직종통폐합 등의 현안 대응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 시도교육청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었고, 상당한 처우 개선이 이뤄졌다. 여기에 힘입어 조합원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학교비정규직 운동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 열악한 처우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극복 의지, 활동가들의 헌신성이겠지만, 이와 더불어 진보교육감이나 의회 등의 정치적 흐름을 활용하고, 학교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낸 데 있다.

부정적 요소들

이처럼 성공적인 조직 확대와 처우 개선을 이뤄왔지만, 부정적 요소들도 존재한다.

우선은 업무를 둘러싼 교사와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추진된 ‘교육업무경감대책’으로 인해 학교비정규직이 급증했다. 교사 수를 늘리지 않고 수업 외의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업무경감이 이뤄진 것이다. 학교업무에 대한 가치평가와 노동자 간 차별은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교육노동의 상에 대한 논의 없이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간의 갈등 해결은 어렵다. 제조업이나 여타 산업의 하청·파견 노동은 자본이 사용 자성을 회피하고 인건비를 경감하기 위한 꼼수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지만, 학교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은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무보조’ ‘특수보조’라 명명하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수업 외 업무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교사와 학교비정규직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다양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는 공무직화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2013년 기준 학교회계적 인건비 총액은 2조 6000억 원인데, 지방공무원 대비 8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약 3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재원이 2014년 기준 2조 6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또 한 가지 갈등 요소는 노조 간 경쟁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노총 내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서울일반노조 등 서로 다른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경쟁적 조직 확대가 이뤄지는 순작용도 있지만, 투쟁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조합원 빼기와 같은 부작용도 심각하다. 민주노총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단결 및 통합 방안 논의를 위한 TF팀을 꾸렸지만, 빠른 시일 내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은 공동교섭투쟁 틀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기 진보교육감 시대에 들어서서는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과의 연대보다는 견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감 입장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이 처우가 예전처럼 열악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처우 개선이 크게 표시 나는 일이 아니기도

하고, 무상급식 혁신학교와 같은 상징이 이전보다 무뎌진 조건에서 안정적인 교육 행정을 위한 교육청 관료와의 동맹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동맹 을 끓어내기 위해서는 노조가 사회적 의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다음 도약은 학교 내 노동의 가치 재평가를 노조가 주도하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학교 내 노동은 크게 ①수업 ②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교육복지 ③주민직선 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 등의 지역자치 ④행정, 시설관리 등 학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네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데, 바로 이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학교 시스템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역사회와 공유 하며, 각 주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진 단체협약을 맺기에도 버거웠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뜯 구름 잡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교육공무직법, 호봉제 등의 요구는 상당한 사회적 힘이 없이는 쟁취하기 힘들다. 또한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자긍심이 조합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으로 열려있는 노조가 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의 지역조직들, 지역시민사회와 유연하게 결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안전 의제로 노조 활성화

어떤 의제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노조를 활성화 할 수 있을까? 이진우 연구원은 노동안전 의제를 제안했다. 제조업에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인정 투쟁이나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 등의 사례가 있다면 학교비정규직에서는 급식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문제를 제기한 사업이 있었다. 2012년 강원도에서의 실태조사, 2014년 인천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근골격계 사업, 충북의 ‘건강안전학교급식운동본부’를 통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개선 연구 등이 그것이다.

노조가 주도하는 학교급식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임단협 투쟁과 다른 방식의 노조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노동 현장을 통제하며 사회적 이슈도 만드는 활성화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자

이시정 사무처장은 교육공무직본부의 역사와 쟁점을 소개하며 학교비정규직 운동의 고민을 나누었다. 지역운동이나 노동안전사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은 있지만 현안에 밀려 추진하기 쉽지 않으며, 복수노조 상황에서 조합원 수 경쟁을 넘어서 내용적인 대표성을 갖추는 것도 고민이라는 점을 밝혔다. 질적인 성장을 위한 간부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직종 간 갈등 해결도 중요한데,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지부와 직종별로 운영되는 분과를 어우르는 조직 운영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문설희 조직국장은 충북에서 ‘교사, 교육공무원, 학교비정규직, 우리 모두 교육노동자’라는 문구와 함께 셋이 어깨를 걸고 있는 배지를 전교조, 공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함께 달고, 공동의 실천을 벌였던 2012년 활동을 이야기했

다. 이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싸워도 깨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파업 기간에 조합원 수가 계속 늘었다. 교사, 공무원들과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많아졌다. 지역 차원에서는 신규 조직의 총파업이 활력을 불어넣었다.

2014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이어, 충북도민 160만 명 중 급식을 먹는 27만 명을 ‘우리가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을 갖고 친환경 음식이나 무상급식을 고민하는 단위들과 공동으로 실천해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한국 노동운동은 그동안 정규직, 대기업, 남성 중심이라는 점에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이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고 노동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



부릉부릉～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화

지자체에 대한 주체적 접근과
지속가능한 조직화 모델

『오늘보다』 2015년 5월호

15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공사·공단·자회사나 민간위탁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상이며, 규모는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환경시설관리 노동자 등 업종과 고용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투쟁해왔다. 민주노총은 해당 연맹들과 함께 3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공감’ 사업단을 발족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작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개선 캠페인 ‘비상’ 사업을 본격화했다. 공공부

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법제도 개선 투쟁을 벌이는 한편, 지자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올해부터 광주전남지역의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 사업이 ‘비상’ 캠페인사업으로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전지부’)는 예전부터 광주전남 지역의 지자체 노동자들을 조직해왔다. 2007년 3.8 여성의 날에 해고돼 440일이 넘는 투쟁 끝에 복직한 광주시청 청소노동자들도 광전지부 소속이다. 광전지부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집단교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개혁적 성향의 윤장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광주시청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을 위한 사회공공협약’을 맺었다.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전환대책과 사회공공협약의 실행 과정에서 노정협의와 집단교섭을 만들면서, 이와 연계해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캠페인과 동시에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광전지부의 이소형 조직국장은 “열악한 조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사회공공적 의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하면서, 노조의 새로운 표상을 만들고 노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의 사용자성을 확보하면서, 집단적인 교섭과 투쟁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아가 공공운수노조 산별운동만의 지역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목표다.

서울과 광주, 지자체에 대한 다른 접근

윤장현 시장의 개혁적 행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사하다. 박원순 시장은 2차에

걸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13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213명의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최저임금 5210원보다 1372원 높은 6582원(2014년 기준)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적인 지자체장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노조 확대와 교섭틀을 만들려는 광진지부의 전략은 서울에서 벌어졌던 양상과 꽤 다르다.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노동운동 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관련된 사업장의 교섭권 확보와 미조직비정규 사업, 정책합의 및 협약 현실화를 목표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결정했다. (가칭)비정규노동센터를 통해 15억 원의 재정을 지원 받는 계획이 추진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중단됐다.

이러한 모델은 근로자복지센터나 근로자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역할과 겹치고,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역할과도 상당히 겹친다. 서울시와 민주노총과의 관계나 국가재정 활용 문제에 대한 논쟁을 상기해 본다면, 정부기관이나 민주노총과 중첩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센터의 명분이 상당히 약하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조가 진보적 지자체장이라는 국면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조직-교섭-투쟁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청소노동자들이 몇 년간 투쟁해서 따 낸 시급이 6200원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통해 시급이 6500원 수준으로 올랐을 때, 노동자들이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노조를 만들고 투쟁할 이유가 있을까? 진보적인 시장에 한 표를 던지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는 훨씬 좋은 선택일 것이다.

더욱이 각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이 별도로 책정되는 것은 정부나 자본이 추진하려는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경남은 지자체 노동자들이 소

속된 노조와 지자체의 집단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과 호봉제 적용을 도입했다. 노조가 개입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별도의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집단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

직접고용 전환도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노조 할 이유’는 더욱 없어질 수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는 임단협을 맺기 어려워 노조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개별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 없이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전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대표성을 가져 힘을 키우는 것이 좋다. 진보적 지자체장 ‘이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경제위기, 재정위기 상황에서 노동조건의 ‘후퇴’는 언제나 가능하다. 직접고용 전환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과 노조의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는 총액인건비와 정년 문제를 고려해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자회사나 별도의 공단을 만들 경우, 노조 확대와 유자강화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지, 간접고용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조직화 모델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조직화 모델의 핵심은 확장성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

공공부문의 지출은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똑같은 청소노동을 하는데

공공부문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처우가 좋다면, 그 업종에서의 ‘철밥통’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 틀이나 방식보다는 내용과 포괄범위에 주목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자체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동시에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노조와 지자체와의 관계는 다른 노-사 관계와 다르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사회정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임단협 교섭 외의 정치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넘어, 지역의 많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협약 의제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 내 여러 직종을 포괄하는 지역 표준임금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서울시가 도입한 직무급은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일하는 기관에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해당 업종의 ‘임금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목해볼 법 하다.

서경지부 대학 청소노동자 조직화가 바로 그런 사례다. 집단교섭을 통해 모든 사업장의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노조에 가입하면 임금이 저만큼 오른다’는 기대감이 노조 가입의 동기가 된다. 조직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임금액이 적용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다. 민간부문은 정부 지침이나 지자체 조례와 같이 강제할 수 있는 기제가 없기 때문에 노조 가입과 적용 범위 확대가 같이 이뤄지면서, 해당 업종의 임금 평균이나 표준이 올라가는 방식의 조직화 모델을 구상해 보아야 한다. 혹은 수도나 가스처럼 지자체의 정책이 인건비 기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기존의 임단협과 다른 방식의 임금 투쟁 모델을 구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 정책은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임금이나 노동조건 외의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고 개입하며 지역 여

론을 형성하고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토론과 실천으로 쟁점을 다루자

진보적 지자체장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노사정 간의 합의 기구를 활용할 것
이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화하는 조직과 교섭 전략은 어떠해야 하
는가, 공공부문의 노동권 향상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많은 질문과 쟁점이 던져져 있다. 더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
고, 전체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릴 전략을 만들기 위해, 노동운동 안에서 많은 토론
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송민영
2014년 4월 5일

27명 정리하고 하겠다는 목포시청에 맞서 싸우는 공공운수노조 목포시립예술
단지회 단원들의 작은 음악회.
바람도 세고 아래저래 열악한데도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바다와 빛꽃과
음악! 좋다!



좋아요 댓글 닫기 공유하기

공공운수노조 조직화, 성공의 기록들

잠 깨어나는 그 꿈을 위해

『오늘보다』 2016년 1월호

2015년 11월 27일 작성

공공운수노조는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성장하고 있다. 2009년 공공노조, 운수노조는 전략조직화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간병노동자, 대학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지자체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보육노동자, 운수노동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조직을 시도했다. 물론 노조가 전략을 잘 세우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주체들의 노력과 투쟁, 조직 활동가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건의 열악함이나 주체들의 의지만으로 성공적 조직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에서 몇몇 사례를 살펴보며, 적합한 전략이 어떻게 성공적인 조직화로 이어졌는지 시사점을 찾아보자.

도화선에 불을 붙이다,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여성노조, 공공연맹으로 조직되기 시작했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차 조직 규모가 축소되고 있었다. 이를 반전시킨 계기는 교육감 직선제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진보세력은 적극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고,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육감과의 교섭 가능성성이 열린 것이었다. 형식적으로는 학교장과 계약하지만, 임금이나 처우, 고용안정 등은 시도 교육청이 결정한다. 여러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의 담을 넘어 지역으로 나와, 교육감과 교육청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투쟁하는 전략이 대규모의 조직화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연합회로 출발했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학교 이곳 저곳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집단적인 힘'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매년 학교장과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시적인 고용불안도 노조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였다. 교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집단적인 조직화가 필수적이었다. 맞춤형 복지사업, 물방울 소송 등 소소한 성과를 내며, 집단적으로 움직여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고, 함께하는 이들이 늘었다. 조직이 확대된 이후, 노조로 전환하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매년 대중적인 파업 투쟁을 벌인 끝에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협을 체결했다. 상당한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

제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조직을 확대하고, 교섭과 투쟁의 틀을 만들어 고용안정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이뤄내고, 이러한 변화가 또 다시 조직확대로 이

어지게 한 교육공무직본부의 사례는 제도나 정세의 변화를 활용한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노조가 주도하는 협약,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지부')는 광주, 전남지역 지자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해왔고, 이와 연계된 집단적 교섭틀을 쟁취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투쟁해왔다. 현재 7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함평무안보성군, 목포시를 직접 사용자로 하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부는 후보 정책질의와 광주시 윤장현 시장 인수위 면담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철회 등의 의제를 제안했고, 광주의 상징적인 비정규직 투쟁이었던 광주시청 비정규직, 서구청 민간위탁, 광주시장애인복지관의 현안 해결 및 용역,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2015년 2월 6일 지부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공공운수노조-광주광역시 사회공공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총 5개의 사회공공정책 분야(비정규직 해결, 사회복지, 대중교통, 문화예술, 나주혁신도시이전현안)를 포괄하고 있고 각 해당분야의 노정 간 정책협의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비정규직 분야에서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모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실행중이다. 간접고용 근절,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노조가 제안한 예술감독 선임절차 개선, 사회복지 비리업체 제재, 노동인권조례, 광주시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등이 주요

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공부문의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개별 현안을 넘어 시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연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초업종 집단교섭을 통한 모델’을 만들려 하고 있다. 지역운동의 모델이 될 사회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투쟁-교섭 틀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수지만 단단하게! 우체국 비정규직

2012년, 동서울우편집중국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캠페인사업단 중 중앙행정기관 사업단은 우체국 비정규직을 집중 조직대상으로 삼았다. 우편지부에는 재택집배원, 시설관리단,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우편지부에 합류해 가입 당시 115명이었던 우편지부는 현재 700명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노조에서 전략조직사업의 목표로 삼는 것 중 하나는 조직문화의 혁신이다. 기존의 조직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를 위해 자원을 집중하는 조직 기풍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캠페인사업단은 우편지부가 전략조직사업을 자신들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2014년은 이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지부는 전략조직사업을 중심으로 지부를 운영했다. 수석부지부장이 캠페인사업단장을 맡고 있고, 지회별로 2~3인이 사업단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설립, 구조조정에 주목하고, 우편집중국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단, 재택집배원, 물류지원단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

노총 소속의 우정노조가 다수라 우편지부는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지만, 현안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조직확대를 이뤄가고 있다. 시설관리단지회는 단협을 체결하고 노조 사무실을 얻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소수노조임에도 전략조직사업을 자기 과제로 인식하며 우체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만들고 있는 우편지부와 중앙행정기관 캠페인사업단은 조직혁신과 조직확대가 맞물리는 유의미한 사례이다.

투쟁-교섭-조직의 선순환, 서경지부 집단교섭

대학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전략조직화의 모범 사례로 언급된다. 지부 차원의 과감한 집중, ‘청소노동자를 청소노동자가 조직한다’는 기조로 조합원들이 직접 조직화에 나선 점,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라는 상징을 통해 현장 문제를 사회 이슈로 기획한 점, 다른 사회운동들과 협력한 점 등 여러 면에서 모범이지만 특히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의 집단교섭 전략은 조직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경지부는 자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대학을 둑어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노조에 가입하면 임금이 저만큼 오른다’는 기대감이 노조 가입의 동기가 된다. 조직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다. 임금 상승 폭이 다르고 집중교섭에 참여하는 직종이 늘어남에 따라 내부적인 갈등 요소가 많고, 사용자의 지불능력이나 태도에 따라 집중교섭이 쉽지만은 않지만, 동일시급 원칙으로 집단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전략적 집중, 인천공항 조직화

인천공항 조직화 사업은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기조 방향과의 부합성, 집행체계 구축, 조직 논의와 결의, 조합원의 참여 여부, 산업지역 파급력 등의 항목을 두고 대상을 선정했다. 인천공항은 간접고용 조직화, 사회적 연대 강화 등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본 방향에 부합했고, 2009년부터 노조연 맹차원에서 전략조직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행 체계와 자원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었고, 공항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있는 곳이었다. 아웃소싱 비율이 90퍼센트 가까웠고, 이는 30개 공기업 중 가장 높다. 산업적 중요성, 상징성, 주체의 조건 여러 면에서 전략조직화의 대상으로 적합했다.

초기에는 항공물류, 화물운송, 항공사 등 여러 부문의 정규직, 직간접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너무나 방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었고, 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핵심 조직 대상으로 좁혀졌다. 설문조사, 조직, 상담, 선전, 정책, 투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늘었다. 재무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을 통해 직접고용이 간접고용보다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세관분회 해고 투쟁에서 승리했다. 간접고용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직접고용 요구를 걸고 투쟁했다. 조합원 수는 800명에서 2000여 명으로 늘었고, 2013년 파업 이후에도 간부 징계, 해고, 단협승계거부 등 현안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성공 사례에서 배우자

위의 사례들처럼 정세와 주체적 조건에 맞는 분명한 목표와 전략이 있을 때 조직화가 성공할 수 있다.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전조직적인 공감

대를 마련하거나 특정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노조의 발전 방향에 맞는 전략적 목표가 우선 마련되고 전조직적 합의가 만들어질 때, 전략조직화는 노조의 새로운 희망으로 제시될 것이다.



《자본》과 나

《자본》 1권 세미나를 마치며

2014년 10월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10권의 책을 골라 게시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뭘까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마르크스의 《자본》이었다. 《자본》이 있었기에 공산주의/사회주의 운동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대륙을 넘나들며 왜곡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면서 종국에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것 아닌가. 그게 아니었다면 나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부끄러움이 엄습했다. 그런데도 아직 《자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니. 나에게 《자본》이 단순히 한 권의 책,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서 가능했던 우습고도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번 《자본》 세미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다. 첫 세미나가 끝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자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 다소 큰 충격과 더 큰 부끄러움에 빠졌다. 《자본》1권을 끝냈다면 끝낸 지금도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으니, 배우려는 자세를 잊지 않는 겸허한 태도를 장착하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장. 상품

상품에서 분석을 시작하는 것은 ‘미시적 상품 → 거시적 구조’로 상승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초반에 학습할 때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분석할 때 개별 상품을 대상으로 두고 투입된 시간, 자본 뜻, 노동 뜻을 계산하려는 합정에 빠지곤 했다. 가치형태는 거시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숙지하고도 계속해서 계산해보려는 버릇이 쉽게 떨쳐지길 어려웠다. ‘가치는 표상 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현실을 모델로 측정한다/이론과 모델이 조응한다’는 점도 인상적.

2장. 교환과정

‘상품에서 화폐로의 목숨을 건 도약’이라는 표현이, 표현 때문에 기억에 남았었고 그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교환과정이 단순한 등가 교환이 아니라, 유일한 등가물로서 화폐가 탄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챕터.

3장. 화폐 또는 상품유통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 1, 2, 3 식으로 다소 기능적으로 공부했었는데, 일반적 등가

물로서의 화폐가 맺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4장.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유통이나 상품교환은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가졌던 의문이 좀 풀렸다. 학생 때는 세미나 때 이 말이 나오면 ‘그럼 유통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은 가치가 없다는 거냐, 제조업만 가치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곤 했었는데 가치 개념의 혼동 때문.

5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 과정, 6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7장. 잉여가치율, 8장. 노동일, 9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10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이 장들은 윤소영 교수 책 등을 통해 비교적 여러 번 봤던 내용들을 확인.

11장. 협업 12장. 분업과 매뉴팩처

협업이 분업보다 먼저 등장하는 점에 관한 설명이 인상적. “협업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특유한 역사적 형태로 나타난다” “협업은 언제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기본 형태를 이룬다”

13장. 기계와 대공업

‘잉여가치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수 감소, 그에 따른 잉여가치량 감소’의 모순. 다른 책에서 공부할 때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마르크스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 장은 다른 책을 통한 개념 정리보다 직접 읽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

14장. 절대적 상대적 임여가치의 생산. 15장. 노동력의 가격과 임여가치의 양적 변동, 16장. 임여가치율에 대한 갖가지 정식

절대적 임여가치와 상대적 임여가치 도식적으로 구분해 학습해 왔음. 각각의 메커니즘 외에 임여가치를 계기로 절대적-상대적 임여가치가 차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 (“어떤 관점에 의하면 절대적 임여가치와 상대적이 임여가치의 구별은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 그렇지만 임여가치의 운동에 주목하게 되면 이런 외견상의 동일성은 사라진다.”) 14장에서 노동생산성을 임여가치의 크기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고하는 리카도 비판하고, 15장에서는 노동일 길이, 강도, 노동생산력이 임여가치 크기 결정한다고 하고 각 요인 변동 상황 가정하고 이를 증명. 이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겠음. 향후 학습 예정.

17장.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임금으로의 전화 18장. 시간급 19장. 성과급 20장. 임금의 국가별 차이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익숙한 파트라 정리하는 식으로 읽음.

21장. 단순재생산 22장. 임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 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

자본주의 재생산 메커니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맬서스 비판의 함의를 알 수 있었음. 노동력 과잉 때문에 이러 저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노동력 과잉을 만드는 메커니즘 지니고 있다는 점이 중요.

24장. 이른바 본원적 축적 25장. 근대 식민이론

‘이른바’라는 제목의 함의. 본원적 축적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연스

럽게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이행과정의 복잡성과 상이한 효과에 주목. 자본주의로의 이행도 많은 저항이 있었던, 부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 이러한 저항의 극복과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은 목적론적, 발전론적 역사관을 지양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줌.

세미나를 시작할 때, 마르크스의 사고, 전개과정에 주목하라는 말을 들었다. 마르크스가 포이어바하와 헤겔을 극복하는 키워드 중에도 ‘과정’이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자본》의 결론이나 유명 문구만 곁핥기 식으로 외웠던 것 같다. 나의 활동과 세계관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결론들만 가져오는 꼴이라니, 운동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 과정. 결론에 이르는 장대한 과정과 구체적인 역사에 주목할 때 보다 나은 시작과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화캠페인단의 사회운동노조적 의미 혹은 발전방향 토론을 위한 메모

2015년 6월

- '사회운동노조적 지향'과 '조직화'는 어떻게 연결 되는가? 노조는 노동자 전체의 단결이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머무를 수 있음.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①전체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연관된 의제로 투쟁 ②임단협 협력범위 확대(조직확대일수도 있고, 유럽식 산별협약의 산업 전체 적용과 같은 방식일 수도 있음) 한국의 상황에서 산별협약이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되기는 어려우며, 조직률 자체도 너무 낮아 임단협의 적용을 받는 수가 어려운 현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할 권리'를 키워드로, 노조의 조직 확대를 강조.

cf. '수가 많아져야 힘이 생기므로 조직하자'는 논리는 어떻게 봐야할까? 해당 부문의 교섭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확대. 결과적으로 적용 받는 노동자가 많아지기는 하지만. 민주노총의 상위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자기 부문 조직률이 어느 정도 되어 교섭

력이 있는 편. (교섭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건&임금 수준 높음) 공공운수노조의 사보지부의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탈퇴 → 직장노조와 통합 사례를 보면 이러한 자기이해를 강조하는 방식의 조직확대 논리는 위험할 수 있음.

- 조직화가 이념을 동반하지 못하면 실리주의에 여전히 머무를 수 있음은 여러 차례 포럼이나 토론에서 지적됨.
- 위의 논의를 공공운수노조에 적용시켜 보자. 공공운수노조의 전략조직화사업(이하 '캠페인사업')은 기 조직된 조합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새롭게 조직된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는가?
- 공공운수노조 전체 차원에서는 조직의 자원을 집중해 새로운 부문의 노동자를 조직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음. 이러한 자원집중을 통한 조직화 모델의 지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합의와 지원이 필요함. 현재는 따라서 노조 내 캠페인사업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높여 나가면서, 지원 및 협력을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및 분위기를 만들어야 함. => 어떻게?

: 공공운수노조의 미래는? 10년 뒤 우리는 어떤 노조가 되어 있을 것인가? 무엇에 투자해야 하나? 투자와 집중을 위해 줄이거나, 포기해야하는 것은?

- 새로운 노동자 층이 조직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음.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등 기존 민주노총의 상징을 바꿔낼 수 있는 부위. 이 부분은 노동시장의 많은 부분인데, 이 중 지자체/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음. '공공부문의 (정규직)노조'라는 상징을 '공공부문의 정규직-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노조'로 바꾸어 내는 의미도 있음. 다만 노조에서 내걸고 있는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이 민간을 선도한다' 식의 관념은 돌이켜 봐야. 《오늘보다》 5월호에서도 노동시장 분절화, 이중화 지적. 격차 확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임금이나 공공부문 노동조건 향상의 상승이 민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비정규직의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정규직되기' 혹은 '민간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되기'로 굳어지면서 노동시장 분절화에서 한 단계를 추가하는 것일 수 있음.

- 필요한 것. ①조직된 사업장만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전략. ②민간부문으로 확장하는 전략.

: 노조는 ①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주요한 과제로 걸고 있음. 조직화 매개가 되기는 힘들다는 평가. 구체적 요구의 기획사업 필요.

: 광진지부는 1)광주시-광전본부/지부 노정협약 이행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 2)개별사업장 임단협 교섭·투쟁 → 노정 공동교섭·투쟁 체계로 전환 (직접고용 공무직·준공무직/산하기관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광주시사회복지재단/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단위/광주시환경공단) 구상.

: ②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지자체 조직화 워크숍에서는 표준임금테이블 등 고민 나눈 바 있음

- 새로 조직된 조합원은 어떤 방향과 이념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교육을 통한 조직확대-노동자 단결 마인드. 조합원들이 새로운 조직화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획/사업/역할 부여 필요. 사업장별 교섭 및 임단협 체결 이후 안정화보수화 되는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획은? 비슷한 업종의 민간부문 조직화 기획 등.

- 사회공공성. 공공부문 조직-투쟁은 사회공공성과 연관될 수밖에 없음. 지역사회에서 공공성 관련한 활동.

- 공공운수노조가 단일한 정체성 갖기 어려운 조건. 공동으로 투쟁 과제로 인식할 수 있는 의제는? 지금까지는 민영화반대/사회공공성.



송민영

2013년 10월 31일

시청광장 농성장 암다가 1인 시위 중.

한우 축제라 지나가는 할아버지들 전교조 빨갱이 어쩌고 해싸서 좀 무서웠는데
방금 한 어르신께서 지지 응원과 먹을 것까지 주고 가셨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송민영님이 김윤영님과 함께 있습니다.

2013년 6월 5일

장애인 등급 매기고 낙인찍는 장애등급제,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
의무제! 폐지 촉구 농성장에서 서명운동 알림판 새로 만들었음 후훗



용산참사 6주기 추모문화제. 평화의 나
무 합창단. 유가족들에게 함께 싸워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
겠다.



2015. 1. 10. 오후 8:53



@itsmysong 님에게 보낸 담글



Ma Song

@itsmysong

투쟁을 응원합니다라고 쓸랬는데 비문
이.... 이미 리트윗 많이 되어버렸다 또
르르....

2015. 9. 4. 오후 4:36



 Ma Song
@Itsmysong

'쉬운해고'가 아니라 '공정해고'라니. 진정 올질을 안해본 자가 만들어낸 말인 것 같다. 갑을 관계에서의 공정함?

2015. 9. 19. 오전 3:56



송민영

2013년 5월 30일 ·

홍대 정문에서 가스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선전전!
민영화주간은 계속 되네요ㅋ 언제 끝나 그만좀해 민영화



송민영

2015년 4월 4일 ·

주말을 잡아먹는 토요일 일정이 마냥 기쁘지는 않지만,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결론 난 것도 없고 정리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순탄한 건 아니고, 좌충우돌일지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뿌듯하다. 나조차 잘은 몰랐던 부분에서, 내가 믿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혹은 고군분투하며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구나, 하는 기분도 들고 여전히 담담하고 불투명한 미래지만 그래도 살아볼만 한 것 아닌가.

좋아요

댓글 달기

좋아요

댓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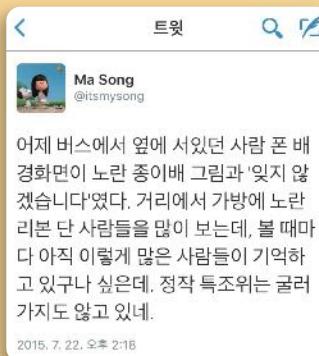
공유하기

Youngsup Jung, Hasoon Park, 최정아님 외 33명이 좋아합니다.



김지학 물리 법방에서 응원합니다^_^

2013년 5월 30일 오후 8:27 · 좋아요 · 2



itsmysong

75주



좋아요

댓글 달기

• movako, coolbam, ryuzeh, woo8___, arobluoey, moonsfar211

itsmysong 세월호 죽불 문화제, 유가족 발언 중
댓글 달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개선 캠페인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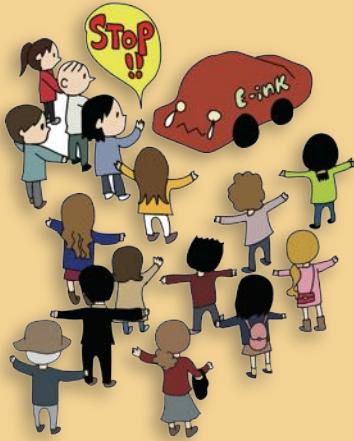
▶ 페이지 좋아요

우리 주변의 혼란한 도시 경제입니다. 이 한 컷 속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유명한 사업은 아니지만 사회 유통을 위해선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쿼스! 이 그림 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하여 네 분께 영화 <클리앙> 예매권을 드립니다. (필자도 당첨이 보이세요?)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노死정 야합 국민은 마르고

9월 15일 노·사·정 합의안은 청년들 노동자에게는 더 쉬운 해고와 더 넓은 부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재벌의 요구사항을 노동자의 요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가스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는 노동개악에 반대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2015 구로 금천 노동환경실태조사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의 대가를 부당하게 뺏기지 못하게 하려고 마련된 노동법입니다.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일시키고, 임금도 평균을 베껴놓고 청탁·기여금을 빼는 행위를 목격해온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와 이정계 활동입니다.

한겨레
2015년 4월 1일 ~ 4월 16일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무료노동 체벌금 흥언스당 미자금 연체율
근로기준법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015.4.1. ~ 4.16

상담전화 02-867-2260 노동자의 미래 민주노총 경북노조



재벌은 살찐다

들에게는 더 열악한 일자리를,
낮은 임금을, 재벌에게는

만 꼼꼼하게 반영해주고
습니다.
는 재벌만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승민영
2015년 9월 22일 · 韓

앞바로 작업한 그림 한 거래 2면 광고로 실렸다 뿐듯

제작자: 김민경
제작일: 2015-09-22
제작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작설명: 노동자에게는 더 쉬운 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재벌의 노동자의 요구는 전혀 가스노동자와 공장 노동개악에 반대합니다.

노사정 합의
국민은 마-

9월 15일 노·사정 합의안은 노동자에게는 더 쉬운 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재벌의 노동자의 요구는 전혀 가스노동자와 공장 노동개악에 반대합니다.

“**노조 생기고 찬업 여부는
내가 정할 수 있게 됐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세일엠텍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출근 시간은 일어도 퇴근 시간을
알 수 없었던 회사

간입 여부는 내가 정하는 회사

최저임금으로 고정된 임금

노동조합의 힘으로 임금을 인상한 회사

연차 쓸 생각도 못하는 회사

연차 쓰고 싶을 때 연차 쓰는 회사

나이 한참 어린 관리사가
‘아줌마’라고 부르며 반말하는 회사

할 얘기 당당하게 하고 관리자한테
무시 안 당하는 회사



[가입 문의]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

☏ 032-525-0497
✉ iclabor0497
✉ iclabor0497@gmail.com

☏ 070-4756-0119
✉ iclabor119
✉ iclabor119@gmail.com



불법천지 공단, 빼앗긴 권리
뭉쳐서 바꿉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 따뜻하고 부지런하고 생색낼 줄 모르던 민영이는
장례식 동안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정세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 살피고,
지혜를 모으고, 같이 나아가라고 ”

[송민영을
추모하며]



2015년 12월 6일 저녁에 열린 추도식



장례 동안 모은 고인에게 보내는 선물과 편지들



파주 서현공원 동관 109호의 봉안당



가신이의 벌자취 |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송민영씨를 보내며

노동운동 고민하던 '걱정국장' 이제 그만 쉬렵



지난 7일 서른들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의 장례식이었지만 무척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화물트럭 운전 노동자, 전자제품 수리 노동자,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들로 빨디 달 틈이 없었다. 사람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가 선전물을 만들어준 예기, 아간 노동기부 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힘을 실어주려고 헌망커피 사업을 기획한 일,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교육하던 모습, 추운 겨울을 농성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한 기억을 나눴다. 모두들 '민영(시진)에게 고마워하고 안타까워했다. 비출은 테이블 사이로 육개장을 정신없이 나르다가 우리 민영이 차 대단하고 살았구나' 싶어 코풀이 시큰거렸다.

근황별의 시대가 끝나 '운동'이 필요 없다고 취급되던 2000년대 초반, 서울대 총학생회 활동을 하던 민영이 와서 처음 만났다. 우리 학생운동 막차를 탔다고 투덜대곤 했다. 그

라면서도 우리는 함께 노동운동으로 갈아랐다. 노동운동도 내리막길이라고들 했고 운동권은 외부세력이나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로 여겨졌다. 그래서 고령화된 운동판에 서 우리는 보기 드문 깊은 이었다. 언제가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우린 왜 맨날 래드 오션 만 마라나니고 있나'고 했다. 그러자 출판 민영이가 그랬다. "우리가 언제 잘되는 판이려 서 뛰어들었나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민영이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다. 출입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서 일할 때에 도,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할 때에도 필요 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충북지역 노조에 있을 때는 모두들 성실하고 재주도 많다"고 입 모아 칭찬했다. 사회진보연대에서는 '조직국장'이 아니라 '걱정국장'이라 할 정도로 네일 내일 가려지지 않았다. 운동이 어려울 수록 같은 늘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지난 한 차운 속에 지쳐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도

민영이는 같은 자리에 서 필요한 일을 했다.

편한 길이나 가로질 라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 누군가 해야 할 일이 라면 자신이 나서는 사람인 만명이는 걱정국장답게 지난 2일 여행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노동운동을 고민했다. 노동자들 사이 격차가 커져, 공동의 요구로 단결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노동운동이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이제라도 민영이를 암시시키려면 좀 더 분주해지자고 다짐하게 된다. 우리가 슬픔으로 비틀거리다 민영이는 또 걱정해느라 쉬지 못할 게 뻔하니까. 민영이가 늘 하던 것처럼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

민영이, 불편증에 시달릴 정도로 걱정하거나 고생 많았어... 그동안 우리가 네 턱을 많이 빼니, 이제는 네가 우리 턱 좀 보게 해줘야겠다. 잘할게 뻔히 쉬럼.

010-6373-0001
02-213-3007
[2015-12-09]

사고 소식과 비보를 듣고, 그리고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믿기지 않던 장례가 끝나고도 송민영 조직 국장을 향한 추도와 추모는 끊이지 않았다. 버릴 것 하나 없는 일백여 개의 추모글 중 일부만을 추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여기에는 12월 6일 추도식에서 낭독된 7 개의 추도사와 추도시, 그리고 추모 게시판과 SNS에 올라온 추모글 중 20개를 싣는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 민영아.

지금 내 기분을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니가 없으니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상이 참 뭐 같은데 원래 내가 좀 응큼하고 체면도 차리고 그런 사람이잖아? 뭔가 쌍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래 니 앞에서 빼고는 남들 앞에서 쌍욕은 잘 안하잖아. 그러면 니가 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듯이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욕이 입에 착착 감기게 잘하는 민영아.

오랜만에, 3주만인가 카톡창에 니 이름을 입력하고 나는 얘기를 죽 올렸다가 다시 찬찬히 본다. 민중총궐기 때문에 경찰에서 40개 단체에 소환장을 보냈다는 기사와 함께 미쳤다고 보낸 니 메세지가 마지막이네. 분명히 니가 태국에 간다고 들떠서 자랑하던 것도 알았는데 왜 나는 너에게 잘 다녀오라는 말 한마디 안했을까. 올 때 담배 한 보루 사오라고 전화라도 한 통 할 걸. 결국 우리 마지막 대화 주제가 민중총궐기네. 근데 어제 니가 한국에 온 날이 또 마침 민중총궐기 날이더라.

송민영 참 징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12년 친구에게 마지막 카톡이 민중총궐기냐, 그 앞에는 내내 술먹자, 오늘은 힘들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참고 참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한 마디 하고 가버린건가? 너가 지켜보고 혼내주려고? 그런데 너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너는 지독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자기가 불편할지언정, 친구한테는 그냥 빨리 잘 돼서 술이나 한 잔 사라고 하는 아인데. 그런데 그 말이 중력과 같아서, 시덥잖은 생각이나 하면서도 그나마 사람 같은 생각과 멀어지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생각과 동시에 너는 분명히 누군가가 보내준 특별한 존재가 틀림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등대, 나침반 이런 단어들을 썼다가, 너무 식상해서 몇 번을 고쳐보다가 포기했다. 너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까? 그런 단어는 있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송민영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송민영 이름 세 글자뿐인 것 같다. 그래, 우리는 늘 민영이가 하잖아. 한 문장이면 그냥 OK였는데 말이다.

이번 여름에 커피나 한 잔 하자고 했다가 우리가 늘 그렇듯이 결국 또 늦게 까지 술을 마셨던 그 날이 생각난다. 참, 9월 달에는 우리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술은 못 먹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냥 보지말자고 쿨하게 약속을 파토냈던 일도 있었네. 너는 술을 마시려고 하는거냐, 나를 보려고 하는 거냐 싶었는데 물어봤다면 아마 나랑 술을 마시려고 했다고 했겠지. 그건 그렇고 니가 그 날은 좀 힘들어했던 거 같아. 피곤해할 때는 있었지만, 그리고 종종 자기가 유능하지 않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날은 확실히 좀 지쳐보였어. 인생에 뭔가 남기는 게 있는지 걱정된다고 푸념을 하길래, 나는, 후명은, 재민이 형은? 경선누나는? 창미는? 그리고 뽕골량은? 니가 우리의 자랑인데 니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땐 ‘내가 미골이처럼 진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니가 지금 우리 옆에 없다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싶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너무 낯간지럽게도 오랜 진심을 얘기한 것이다. 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바가 바로 내 생각이라고. 니가 어떤 어떤 생각을 하든, 니가 틀렸을 리가 없다고. 니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니가 알았어야 할 텐데… 송민영 이외에 다른 사람이 계속 사회운동을 한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진 않을 거 같아. 조금은 니가 니 생각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너는 그냥 친구가 또 위로하는 한 마디라고 생각했으려나. 아니면 사실 너는 니가 잘난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같은 못난이들하고도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늘 안 잘난 척 한 건가.

여기 많은 너의 친구들이 있어. 동지? 선배? 후배? 아니면 그냥 이름 세 글자, 니가 부르던 많은 호칭이 있을 텐데, 나는 그 사람들 모두를 너의 친구라고 칭하기로 했다. 너는 나에게 송민영이기도 했고, 송민영 동지이기도 했고, 대장님이기도 했지. 또 때로는 어이없이 누나랑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생일이 반년 이상 빠른 나를 동생 취급을 하기도 했지만, 너는 나에게 친구 그 자체이고, 나에게 송민영이 없이 친구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쨌든 나는 송민영이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한다. 많은 너의 친구들이 우리 민영이는 정말 정의롭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치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심지어 엠엘비파크라는 야구 사이트에도 니 소식이 올라왔어. 네이버 검색창에는 송민영을 치면 사회진보연대 송민영이 연관검색어로 떠. 내 친구 출세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민영이 니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먼저 간다고 생각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

쉽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는 내가 너 두 배를 살아도, 아니 그 이상을 살아도 다 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쉬려고 한 거 같아. 풍족하진 않았지만,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열심히 노동시민들과 투쟁하고 가장 열심히 놀고 가장 열심히 술마셨으니까 너의 하루는 내 하루의 세 배쯤은 되지 않을까 싶다. 민영이 부모님, 언니, 형부, 친구들, 동지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우리 민영이는 피곤했지만 누구보다 즐거운 세상 여행을 하고 갔습니다. 민영이는 원래 다정하지만, 또 뚱한 아이라 인사하는 것이 쑥쓰러워서 그냥 간 것이에요. 원래 자기가 주인공인 자리는 낯간지러워하는 친구니까요.

민영아, 니가 청주에 처음 내려갈 때 쓴 편지에 한 번 적은 것 말고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민영아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민영아 너에게 마지막으로, 물론 앞으로도 마음으로 너에게 많은 말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육성으로 무슨 말을 전할까 고민해봤다. 너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활짝 웃었는지, 한 번 떠올려봤어. 유능하다, 똑똑하다, 성실하다, 재밌다 너에게 어느 하나 해당 안되는 말이 없지만, 역시 니가 가장 활짝 웃었던 말은 이 말인 것 같아. 민영아, 너는 참 예쁘다. 진심이야. 정말 너무 예쁜 민영아, 다음에 만날 땐 이렇게 오그라드는 얘기하지 않게 친구답게 매서운 손으로 내 등 한 번 때려야지. 니가 좋아하는 힙합 노래 들으면서, 좋아하는 진토닉도 맘껏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물론 또 끝은 소주겠지만. 내년 가을에는 제주도에 가야겠다.

언니 잘 있었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말에 뭐해요? 안 바쁘면 맛있는 안주에 술 한 잔 해요.

언제까지고 할 수 있을 말일 줄 알았어요. 좀 더 자주 연락할걸. 좀 더 놀아달라고 귀찮게 할 걸. 소중한 사람이라고, 좋아한다고 말만 했던 것 같아 한없이 후회가 되네요.

언니와의 첫 만남을 기억해요. 2005년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일찍 떠나는 신입생을 헤매지 말라고 버스정류장까지 몸소 배웅해주었던 학생회장 언니. 처음 살게 된 낯선 서울에서 밤마다 언니가 불러준 덕에 혼자 외롭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언니한테 말한 적도 있는데, 마치 새끼 오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어미로 인식하듯, 부끄럽지만 언닌 저에게 서울, 그리고 대학생활의 엄마오리였어요. 오이량 파마해봐, 하는 언니의 권유에 처음으로 파마도 했었는데 기억나요? 엄마 말도 그렇게 잘 듣지는 않았던 딸이었는데, 언니가 하는 말은 참 잘 따르려고 노력했네요. 언니는 『자본론』이든 아이돌이든 뭐든지 잘 알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냥 다 잘 알고 다 잘 하는 사람이었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언니에게 주어진 시간이 왜 이다지도 짧은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송민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나 빨리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상실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슬프네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도 울고 있지만 않을게요. 언니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잠깐만 슬퍼하고, 언니와 나누었던 시간과 경험들 잘 기억하고 잘 추억할거에요. 학교, 녹두, 광화문, 종로, 대학로, 홍대, 남이섬, 구미, 제주, 정말 어느 한 군데 빨 것 없이 언니와 같이 놀고 웃고 투쟁도 했던 그 모든 곳에서 언니가 생각날 거에요. 그러니 잊지 않고 매 순간 언니를 닮아 살도록 노력할게요. 언니가 예뻐하는 동생으로 계속 남을 수 있게 열심히 살게요.

언니는 정말 내 인생의 큰 별이었고 앞으로도 지지 않을 별이에요. 이제 편히 쉬어요 언니. 사랑합니다.

추도사

오미경

언니. 실은 추도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써도 언니에게 타박들을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썼다 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의 부재를 곱씹고 또 그걸 말로 꺼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인하는 일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 때로는 질투날 정도로 언니가 예쁘다 좋다 말하던, 언니가 몸처럼 아꼈던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들이,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이 언니 가는 길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잘 보내줘야 한다며 이 악물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언니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언니를 오래오래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 굳게 먹기로 했어요.

언니 사진첩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미골 사진이 너무 많아서 오미골 사진첩 같대요. 언니. 내 안에도, 스무 살 이후의 모든 기억들 속에 언니가 빼곡히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넘겨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남은 사진첩에 언니가 없을 거란 것도 아직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네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언니가 아주 많으니까, 서로의 눈짓 속에, 표정 속에, 작

은 몸짓 하나 속에도 언니가 아주 많이 담겨있으니까 서로를 보면서 언니를 느끼고 보고 담아가야 하겠죠? 그렇게 언니를 계속 담아갈게요. 담고 또 채우고 그럴게요.

언니. 엊그제 공항에서 언니 부모님을 처음 뵈었어요. 언니가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언니 대신 손도 꼭 잡아드리고 따뜻하게 잘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언니가 마음 놓고 덜 아파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언니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안에 언니가 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우리의 웃음, 눈물, 두려움, 기쁨, 설렘.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순간과 감정들을 언니와 함께 했으니까요. 언니의 반짝거리고 빛나는 대학생활도, 언니가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사람인지도 전해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언니. 많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언니 후배들이라고, 언니가 정말 많이 예뻐하고 잘해줬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우리 민영이는 그랬을 거라고, 참 착한 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니가 어땠을지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참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언니를 전해드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언니? 그렇게 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언니. 어제는 오랜만에 구두를 신고 총총 뛰어다녔어요. 학생회 선거할 때 교정을 뛰어다니던 이후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언니 보러 온 사람들, 후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언니. 결혼하고 운동, 투쟁, 연대 같은 단어는 다 잊고 사는 것 같던 후배가 언니를 늘 존경하고 언니의 용기를 부러워하고 있었대요. 언니를 잘 모르는 까마득한 학교 후배들도 학교에 언니를 추모하는 자보를 붙였대요.

다들 가까이 있진 않아도, 언니를 잘은 몰라도 언니가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일

을 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단비 같은 언니가 말라있는 사람들 마음의 틈
새에, 마른 세상의 틈새에 촉촉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우리 자랑, 우리 보물 민영 언니. 우리 같이 만나기도 했던 내 좋은 친구가 기
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빌면 된대요. 늘 언니를
위해 기도할게요.

언니,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언니.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재밌는 얘기 많이 만들어 가서 들려줄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

추도사

친절하고 성실하며 명석하고 배려 깊은 민영이의 좋은 면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으로도 충분했는데 민영이는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는데 손발마저 빼르고 성실했으니 민영이가 필요한 곳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민영이를 친구로 둔 참복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민영이의 장례를 치르며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우리 송이, 이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있던가. 나는 성실해, 혹은 나는 이런 친구들을 챙기고 있지, 내가 이런 걸 해냈지 은근히라도 내비친 적이 있던가. 몇 가지 생각이 나는 최근 일은 민영이가 예쁘게 만든 선전물이 신문 2면에 실려서 뿌듯해했던 것, 데드 리프트 30킬로그램에 도달했다며 알통을 자랑했던 일, 나는 술 많이 먹어도 잘 일어나서 일정에 차질이 없어 좋다고 다행이라고 했던 일. 빼기는 구석 하나 없이 담담히 즐거워하던 얼굴이 기억나서 그래, 민영이는 그런 친구였지 생각나게 합니다.

민영이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술 때문에 그 대화의 절반은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쉽지만, 사실 민영이는 성실함, 친절함 같은 것을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타고난 것이라 별게 아니라던 민영이가 생각하는 자기 장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성격, 음주가무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바치는 다소의 낭비,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필름도 잘 끊기는 귀여움, 민영이는 이런 면을 사랑스럽다,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나는 내가 좋은데, 알고 보면 조금 엉망인 생활이 귀여운데 그런 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민영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영이의 다정한 친구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영이의 빼곡한 약속에는 민영 자신을 위한 시간들도 틈틈이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민영과 저는 오전 출근을 제끼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민영은 강연회 중간 도망 나와 술을 먹기도 하고, 집회가 끝나면 클럽을 다녔습니다. 조직화를 빌미삼아 여러 지역에 놀러도 다녔습니다. 민영이 보냈던 시간들이 행복한 기억이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민영을 기억하며 우리가 배울 것은 그녀의 성실함 따위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은 친구들의 실수연발 못난 짓도 ‘재밌다’고 해주었고, 친구의 경사를 그저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하를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습니다. 민영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했습니다. 조금 싫은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쓸모를 발견해내고 격려하던 민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쓸모 대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쪽같은 내 친구가 아까워 화가 납니다.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그저 슬퍼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영의 역할이 가치 있다 고 믿는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민영을 배우고 닮아야 하는, 서로에

게 민영이가 되어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가족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영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영은 자신의 가족을 '염치의 가족'이라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은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져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영이는 그렇게 컸겠지요. 민영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 전부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독립심 강하고 노는 것 좋아하는 나는 특히 엄마를 닮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는 엄마아빠 다 안 닮았고 주워왔다고 놀리곤 했는데 민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는 완전 엄마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자주하지 않던 부모님 이야기를 민영이는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에서 큰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잔소리 않는 부모님이 늘 고마웠고, 자식의 사회적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부모님이 든든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일에는 언니가 벨리댄스 공연을 한다며, 우리 언니는 게임도 나보다 잘하고 재밌게 산다, 우리 언니 귀엽고 좋다고 했습니다. 형부도 부모님께 잘해 든든하다며 나보다 낫다고 웃었습니다. 민영은 이런 얘기를 낮 뜨겁고 간지러워서 엄마아빠에게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돌아오는 엄마 생일에는, 아니면 어버이날에는, 아니면 결혼기념일에는 꼭 진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영이가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를 대신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영이는 지혜롭고 자유로운 부모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훌륭한 나의 친구 민영이를 길러주신 가족 분들께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나누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민영아,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네

재주 많은 매끈한 손이, 깨끗한 어깨가, 무수했던 다리의 작은 상처들과 소주를 많이 마신 날이면 생긴다던 오른손 셋째 손가락의 생채기가, 까맣고 구불거리던 머리와 아무 노래에나 몸을 흔들던 모습이, 너무 생생하기만 하다.

너의 친구가 된 이후 나의 미래에 대한 상상과 계획에는 네가 고려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서로의 집 거리와 삶의 질은 반비례한다며 뻔질나게 다닌 그 길을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할까. 하루의 마무리가 허탈할 때면, 개새끼 소새끼들이 우리 총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면 밤이고 새벽이고 달렸던 그 길을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하나 두렵기만 하다. 며칠만 못 봐도 가시가 돋아 동동거렸는데 이 많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야 하니.

너처럼 예쁜 아이와 친구여서 기뻤어, 너처럼 재밌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했어. 누구보다 뜨겁게 분노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주변에 따뜻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기 위해 노력한 너를 앞으로도 닮아갈게. 서럽고 속상했던 일, 작은 것 하나까지 털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길 바랄게 민영아.

민영이는 약간의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11~12시에 자면 3~4시에 깨버리곤 했습니다. 긴 잠을 깊게 자고 싶어 했는데 너무 빨리 긴 잠을 맞이했습니다. 치열했던 민영의 삶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박혀 평등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길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 민영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꼭 다시 만나 기쁨의 깨춤을 추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민영아 사랑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추도사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본부장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진짜로 오는 통증인줄 요즘 알았습니다. 눈앞이 막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파티션 너머로 동지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두워진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샛별이었습니다. 메말라가는 이 땅에서 송민영은 단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워져만 가는 노동운동에 왜 걸음을 했는가 물어 봤을 때 조용히 동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울 때 운동을 하는게 옳은 것 것 같아요”라던 동지는 그렇게 그 운동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송민영 동지! 동지가 염원하던 노동조합이 잘되야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체 무엇이 바빠 그리 일찍 가셨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한 공간에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만나서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눌수 있다고 생

각해서인지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유성공대위 논의로 사회진보연대에 제안을 하려 했을 때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밝았고! 힘 있었으며! 긍정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동지는,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투쟁을 했을 때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희망커피 연대를 sns에 올리며 지친 노동자들에게 달달한 연대의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차별과 설움에 찬 여성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지는 똥한 표정으로 멋진 몸짓을 보여 주었습니다. 동지는 우리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출근하며 또래의 여성들처럼 멋부리기보다는 조직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투쟁을 만들었던 동지는 그 흔한 사진 한 장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집회에서, 삼겹살 감자탕집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동지의 헌신적인 삶과 사람을 사랑하는 연대하는 삶에서 우리는 동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송민영은 메말라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운동에서 단비가 되었습니다.

추도사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조직실장

송민영 조직국장이 일하는 자리는 제 오른쪽 맞은편입니다. 민영이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주로 분홍색 헤드폰을 쓰고 일했습니다. 제 맞은편에서 일하는 민영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또 제가 업무시간에 잠깐 쉬자며 농담을 해대면, 민영이는 “이 아저씨가”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전 장례가 끝난 후 어떻게 제 앞자리를 봐야 할지, 민영이 목소리 없는 사무실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책상에 머리를 박고 일을 할 수도, 귀를 막고 회의를 할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민영이가 일했던 사무실에서, 민영이가 없는 오늘, 내일의 일들을 봐야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휴가를 주지 말걸 그랬습니다. 업무가 바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던 민영이는 어렵게 미루고 미룬 일주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출국하기 전날도 야근을 하며 여행 준비를 하지 못했다 말했었습니다. 여행 가기 몇 시간 전에도 메신저에 검토를 바란다면 노동운동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민영이의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성장하고 있다. 2009년 공공노조, 운수노조에서 전략조직화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간병노동자, 대학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지자체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보육노동자, 운수노동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조직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정세와 주체적 조건에 맞는 분명한 목표와 전략이 있을 때, 조직화가 성공할 수 있다.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전조직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거나, 특정 부문에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노조의 발전방향에 맞는 전략적 목표가 우선 마련되고 전조직적 합의가 만들어질 때, 전략조직화가 노조의 새로운 희망으로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저 글을 올린 다음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냅니다. “오늘 1차 마감이고, 12월 6일까지 의견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민영이가 귀국해 글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마감시간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조직국장 송민영이 공식적으로 수행한 마지막 업무입니다.

책임감이 높아 자신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송민영 조직국장에게 차라리 휴가 대신 일을 좀 더 빨리 끝내라고 채근할 걸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민영이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 이 점이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송민영 국장은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은 개성이 강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타협할 것과 끝까지 토론해야 할 것들을 나누는 건 송민영 국장의 몫이었습니다. 아니, 송민

영 국장만 할 수 있었던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저희 단체 회의자료 게시판을 보면 이렇습니다. 2129번, 학교비정규직 관련자 모임, 작성자 송민. 2120번, 조직실-연구소 회의 결과, 작성자 송민. 2103번, 공공 회원모임 결과, 작성자 송민. 2094번, 수도권 회원모임 결과, 작성자 송민. 그리고 또 송민 송민 송민… 송민은 민영이의 게시판 낙네임입니다. 사회진보연대 모든 사업에 송민영 국장이 있었고 송민영 국장을 통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영이의 사진은 부산에서, 창원에서, 광주에서, 충북에서, 인천에서도, 그리고 경기에서도 회원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송민영 국장은, 고집이 강해 종종 회원들간 논쟁의 당사자가 되는 저에게 ‘갈등 담당’이라고 놀려대며 자신을 ‘걱정 담당’이라고 푸념하곤 했습니다. 사실 전 그런 송민영 국장이 부러웠습니다. 소통하고 조율하고 갈등을 정리하는 민영이의 능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송민영 국장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소통력, 책임감, 업무추진력 탓에 이제 사회진보연대는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누가 민영이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제가 맞춤법을 틀리면, 약속시간에 늦으면, “실 땅님!”하며 호통 메시지를 보냈던 민영이 없이, 제가 어떻게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송민영 국장은 일을 평크 내는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그래서 어떻게든 송민영 국장의 빈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물론 전 아직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을지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죽을 힘을 다해 그녀의 뒷까지, 민영이가 원했던 세상, 평등-자유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영아. 이제 끝 자라.

추도시

: 그대 떠난 자리에

그대가 떠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
그래서 다시 살아나 전보다 더 알뜰히 아끼며
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남몰래 손에 힘 주어 주먹을 쥐어보곤 했는데

웬 일입니까.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하늘 한 구석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으며
씨발 지금 누굴 데려가고 누굴 남겨두는 거야
이래서 되는 거야, 이런 안 되지

우리가 만난 날들을 이리저리 더듬습니다.

함께 불렀던 노래

더불어 추었던 춤

같이 꾸었던 꿈들이

갈피마다 가득한 날들이

쏟아져 내리는 눈발처럼 어지럽게 가슴을 수놓습니다.

갔지만 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거듭 입안으로 우물거리는 동안

그대가 찍고 간 발자국마다

노동해방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는 것을

눈물 어린 눈으로 나는 보았습니다.

아니, 그대가 걸어간 그 자리뿐 아니라

그대가 만나고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도

그렇게 노동해방이라는 이름의 꽃 말고도

자유라는 이름의 꽃

평등이라는 이름의 꽃

더 나은 세상이라는 이름의 꽃들이

송글송글 피어오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대는 떠났지만 우리는 그대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우리들 가슴에 피워놓은 꽃을 보며 배울 것이고
그대의 몫까지 알차게 살며
가열찬 투쟁 이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
이제 쉬십시오.
걱정말고 쉬십시오.
노동해방, 자유, 평등으로 더 나은 세상 이루는 날
그대 이름에 어울리는 꽃송이 들고
온 세상 가득한 춤 춤 터이니
그날을 기다렸다가

때 되거든
그때가 되거든
돌아오십시오.
돌아와 다시 우리의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꽃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

부끄럽거나 비겁하지 않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며
영면에 드는 그대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슴에 묻습니다.

민영아

민영아!

민영아!!



박진경

서른둘 노동운동가 송민영을 기억하며

: 2015.12.9〈미디어스〉기고

민영이가 떠나고 나니, 이제야 친구에게 해줄 수 있던 것들이 물밀듯 떠오른다. 지난 생일에 예쁜 팔찌라도 하나 선물할 걸. 우리 동네 맛있는 초밥집에 데려가 민영이가 좋아하는 안주에 술 한잔 할 걸. 매년 이맘때쯤 과메기를 시켜 동료들과 술 한잔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던데 실컷 먹으라고 몇 두름 주문해줄걸.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물어볼걸. “너 요즘 힘든 일은 없냐?”

서른둘에 우리 곁을 떠난 민영이는 대학시절에 만난 동지, 친구이다. 학교는 달랐지만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학년이 높아질수록 함께 할 일이 많아졌다. 전국학생행진이라는 학생운동조직에는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우리는 대학생들이 무한경쟁 속에서 홀로 취업 스펙 쌓기보다는 함께 사는 법을 찾기를 바랐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는 점점 사라져가는 대학의 자치공간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권 여성권 평화권 등 세상을 바꾸는데 필요한 담론들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

다. 해외연수에 가거나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친구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이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하루가 느슨하지는 않았다.

특히 민영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실한 친구였다. 시간 약속을 빤틈없이 잘 지켰고 함께 읽기로 한 책은 꼭 읽어 왔다. 생점 정리도 일목요연하게 해서 민영이가 있으면 토론도 잘 됐다. 할 일이나 고민을 미뤄서 지지부진하게 만들기보다는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다. 민영이는 그림도 속삭속삭 잘 그렸다. 민영이와 우리 친구들은 서로에게 자극을 받으며 가난하고 마음 속 갈등 많은 대학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우리는 사회운동을 하고 싶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해 볼까, 관심 있는 분야의 사회단체에 들어가 일해 볼까, 연고지가 없는 지역에서도 잘 버틸 수 있을까,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몰래 취직해서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까… 이런 고민을 하며 겨울을 보냈다. 공부하고 상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일단 우리는 함께 결론을 내렸다. ‘일단 뭐가 되든 3년, 5년 열심히 부딪혀 보자. 그리고 다시 만나자! 그때 되면 또 앞길이 보이겠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함께여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민영이는 동기들 중 제일 먼저 진로를 결정하고 충북으로 내려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차장을 맡은 민영이는 노동조합에 필요한 이런저런 실무를 처리하고 지역 노동자들을 만나 민영이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활동을 했다. 이를테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탄압받을 때 ‘희망커피’ 사업을 기획해 지역의 연대를 조직한다든지, 노동조합 여성주의의 강화를 위해 여성 조합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든지.

민영이는 맡은 일을 뚝딱뚝딱 해냈다. 그렇게 어디가나 한결 같이 쓸모 있는

모습이 참 위안이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익숙하고 북적거리는 생활만 하다가 조금은 낯설고 외로웠을 텐데. 나도 민영이를 좀 더 자주 찾아가 응원해줬어야 했다.

충북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민영이는 사회진보연대의 사무처에서 활동했다. 어딘가에서 캠페인이나 연대 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항상 근처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술 한 잔 하자던 그녀였다. 민영이는 충북에 있을 때 친구들이 자신을 보러 놀러온 것이 큰 힘이 됐다며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친구들을 모아 함께 갔다. 뒤에 사람들을 싣고 씩씩하게 봉고차를 몰고서 말이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 흩어져 나름의 사정으로 바빴지만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드는 민영이 덕에 동지의 안부를 확인하며 힘 받을 수 있었다.

자신의 재능을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해 썼던 민영이. 민영이의 장례식은 그녀의 친구들과 다양한 산업의 노동자, 동지들로 빨 디딜 틈이 없었다. 슬픈 와중에도 민영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따뜻하고 부지런하고 생색 낼 줄 모르던 민영이는 장례식 동안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정세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 살피고, 지혜를 모으고, 같이 나아가라고.

아직도 예쁘고 건강하던 우리의 친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나타나 함께 시끌벅적하게 놀 수 있을 것 같다. 젊을 때 왕창 놀자던 민영이었는데. 우리가 가장 예뻤던 시절이 한 움큼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다. 순간순간 그녀의 빨자취가 생각 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여서 민영이를 추억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것을 먹고 마시며 함께 울고 웃으려 한다.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줘, 민영아! 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게. 아깝고 보고 싶은 내 친구… 이제 좀 편히 쉬렴.

내 옆자리 민영이

성실한 민영이는 언제나 출근 일등. 내가 알량한 수영한답시고 일찍 나온 날이면
상큼하게 모닝 사과를 나눠 먹으며 하루를 함께 시작했지.

점심밥을 함께 지어먹는 우리 사무실. 사과 하나로 허기진 우리는 점심시간을
고대했지. 밥 시간이 다가오면 너랑 나랑 식당으로 향해 밥당번을 도와 상차리기에
나섰지. 그것뿐이었니, 간식으로 준비한 견과류도 깨알 같이 나눠 먹었잖아.

우리의 먹방은 사무실에서 끝나지 않지. 하이라이트는 역시 술자리 아니겠어.
일차 이차 술집을 거쳐 삼자는 연남동 공원이지. 팔라되어서 마지막으로는 너네 집
으로 고고싱. 니가 큰 맘먹고 장만한 스피커로 담날 주민 항의 들을 각오로 힙합에
서 오만 장르 다 거쳐 들으면서 신나게 놀았지.

내 옆자리 민영이. 올 겨울 따듯하게 나라고 텔실내화 선물하면서, 가까이 앉
은만큼 더 가까워지자고 했는데 왜 멀리 가니. 가지마 왜 그렇게 빨리 가니. 나는 문
장 하나도 완성하기가 어렵구나. 니가 너무 아까워서 사무쳐서 문장 하나를 끝맺기
가 어려워.

민영이를 안 지 십년이 다 되어가지만 우린 그렇게 가까이서 활동한 적은 없다. 올해 조직실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되며 민영이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당시 내 상태는 내코가 석자라는 마인드로 좁은 시야와 마음인지라 후배도 선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 옆자리 민영이는 나와 다르게 대인배라 늘 모두를 둘러보고 보듬고 있어 고맙고 부끄러웠다. 우리 단체는 언제나 지가 잘났고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들인자라 대놓고 칭찬하고 인정한 적은 없었지만, 속 깊고 혼신적인 민영이의 노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이야기하기로 든든한 기둥이었다.

나도 옆에 앉은 짹궁에게 배우는 마음이었다. 특히 여성 후배들은 늘어 가는데 우리가 기대고 있던 언니들은 활동에 공백이 생기고, 어느덧 우리는 중견 활동가로서 역할을 요구받는 시기였다. 고민과 부담이 커져 갈 때 민영이는 누구보다도 내게 의지가 되었다. 내가 아무리 마음도 시야도 좁다 하더라도 민영이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우리 세대에 돌파구가 생기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막막하다.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이 글을 마무리하기에는 솔직하게 니가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야속한 사람아.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다. 이 거대한 비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민영아 가지마.

자랑스러운 나의 언니

려목

언니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언니가 학생회실에서 냉면 사주던 때가 생각나네요. 냉면은 잘 못먹고, 고기만 많이 먹던 아이였다면서 놀렸었는데 그죠? 학생운동 졸업 후에도 청주에서 또 만난 우리 인연이 참 질기다 했던 얘기도 떠오르고요.

로리팝에서 같은 바지를 사고, 낙엽 지는 가을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린티애’에서 차도 많이 마시고. 언니 덕분에 좋은 기억이 참 많네요.

사소한 삶을 나누는 기쁨이자, 운동에 있어서는 늘 나에게 모범이요 마음 속 가장 큰 선배였던 언니. 뇌를 안 거치고 척수로 얘기한다며 놀리다가도, 그래서인지 너는 발언을 참 잘한다고 자랑스러워해 주었던 언니. 나는 언니가 “이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같이가자던” 그 날의 약속을 아직 믿고 있어서, 언니와의 이별을 실감하지 못하겠어요. 노래 한 곡에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전화기 너머 언니 목소리에 견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고 싶다고 얘기할 수 조차 없어서 서럽네요.

저는 늘 걱정되고 마음 쓰이는 후배였지요. 언니의 너른 마음에 비해, 나는 언니에게 해 준 것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언니를 사랑하고, 늘 자랑스럽고 든든하다는 얘기를 때때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언니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언니가 주고 간 사랑 때문이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 덕분에 저도 마음 놓고 활동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가는 길에도 저한테 가르쳐 주는게 참 많아요. 정말로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언니가 있어서 내가 버텼는데, 이제 언니 끗까지 버텨내야 하나봐요. 아직 더 징징대고 싶은데, “야 임마” 하는 언니가 없으니 내 속으로 품어야 하나봐요. 약한 마음이 스물스물 밀려올 때마다 언니가 “마음 단단히 먹어!”라고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아서, 드문드문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말에는 잘 안 움직여도 언니 말에는 움직였던 저인데, 이제 어쩌죠? 다른 선후배들 떠난 자리에도 우리는 꼭 함께 가자고 잡았던 언니 손을,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언니가 꿈꿨던 것들,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해야겠지만 언니 없이는 너무 힘이 들 것 같은 제 마음, 언니도 알죠?

언니처럼 좋은 사람과 같은 꿈을 꾸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때로는 마음놓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언니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언니가 저한테 줬던 사랑만큼 저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마농.

수고 많았어요, 푹 쉬어요

장진범

나는 사실 민영 씨를 잘 알지 못한다. 그는 내가 학교를 떠난 직후인 2003년에 입학했고, 그 뒤로도 같은 공간에서 활동할 기회는 없었다. 술자리도 딱 한 번 가져봤나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길게 나누진 못했다.

그렇지만 출신 학교 출신 단대 후배 중에 거의 유일하게 운동을 계속한 친구였고, 그 친구를 알게 된 게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운동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있을 즈음이어서, 그는 나에게 죄책감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일으키는 존재였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 활동가로서의 품성도 뛰어나고, 또 모두가 알듯 능력도 출중했기에, 그와 결부된 감정은 더 강해졌다. 그래, 나는 지금 이 모양으로 살지만,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기여한 건 거의 없지만, 아무튼 저렇게 훌륭한 친구를 운동에 끌어들이는 데 내가 한 역할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므로, 내 지난 인생도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어라고 나는 생각했다. 2011년 연말에 『알튀세르 효과』가 나와 포스팅을 올렸을 때, 책값이 너무 비싸다는 댓글을 단 그 친구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그 책 속표지에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께’라는 문구를 적어보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저버린 그 삶을 끗끗이 살아가는, 당시 그 이름에 값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속 후배'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에게 갑작스레 닥친 이 무의미한 불행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거의 없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내리는 것은, 이것이 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그의 주위 사람, 그리고 운동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부모를 잃은 자식이 서럽게 우는 것은, 부모의 죽음이 슬퍼서일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살아가야 하는 자기 자신이 막막하고 불쌍해서라고 했던가. 민영 씨 같은 동료 없이 앞으로 나는 이 잔인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 그 전에, 민영 씨 같은 후배가 사라졌으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어떤 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한 시대를 잃었다. 그저 30년을 보낸다고 그런 존재가 다시 도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시대와 타고난 질료의 마주침으로만 빛어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성품과 재능을 잃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성품과 재능이 더해져야만 열릴 수 있는 미래 하나를 잃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 어떤 미래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겠지만.

하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라면, 더욱이 미인은 박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외투로 옷을 여미야 하는 추운 겨울에, 이국의 따뜻한 바다에서 가장 빛나는 나이에 가장 친한 친구와 휴식을 취하다 맞이한 그의 죽음 자체는, 그가 쌓은 덕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가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일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은 어쩌면 남아 있는 우리의 욕심일 것이다. 그의 나이는 젊었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했고, 충분히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바다의 따뜻함과 평안함 속에서 영면하기를. 민영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푹 쉬어요.

고인을 기억하며

손아람

오늘 오전 사회진보연대 송민영 활동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대 미학과와 연대회의를 거쳐서 사회진보연대로 진출했다. 맞다. 소설 『디 마이너스』의 뮤즈 가운데 한 명이다. 신입생 때 첫인상은 여러 편견으로 미루어 곧 떨어져나갈 사람 같았는데 내가 아는 누구보다 오래 남아 세상과 싸웠다. 성인 이후 시간을 다 싸우는데 쓴 셈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선배도 후배도 친구도 다 떠나간 그 자리를 왜 또 어떻게 쓸쓸하게 남아 지킬 수 있는지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됐다. “너 혹시 그게 재밌는 거니?” 가끔 물어보고 싶었다. 내구력이라는 인간의 자질에 대한 내 평가에, 그리하여 내 세계관과 소설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민중가요 대신 거리낌없이 대중가요를 들었고 오후의 진지한 싸움을 끝내면 홍대 클럽으로 퇴근해서 밤새도록 춤을 춤을 췄다. 간이 없는 사람처럼 술을 마셔댔고 시덥잖은 농담에 시도 때도 없이 터뜨렸다. 웃음이 가시면 무표정하다기보다 우울해 보였다. 한참 웃으며 대화하다 말고 십 분 넘게 이유없이 불편하게 침묵했던 적도 있다. 띠엄띄엄이지만 십 년을 보고도 전부 다 파악이 안 됐던 사람.

“진우의 길은 나와 엇갈렸다. 평범한 세상으로 뛰쳐나간 건 나였다. 진우는 학생운동을 포기하기는커녕 전우의 시체처럼 사회 바깥까지 질질 끌고 나왔다. 사회진보연대에 들어간 진우는 지난 몇 년간 백혈병에 걸린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삼성전자와 싸웠다. 화가 나면 선글래스를 벗어들고 가늘게 뜯 한쪽 눈으로 섬뜩하게 째려보는 ‘애꾸눈’은 이미 경찰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존재가 되었다.

미쥬의 눈썰미가 옳았던 것이다. 미쥬는 우리 정파의 미래가 진우에게 걸렸다고 말했다. 진우는 우리 정파가 아니라 운동권의 미래를 어깨에 걸어졌다. 전우들은 싹 전멸하거나 전장 바깥으로 달아났고, 어둑한 PC방에서 밤새워 스타크래프트하길 즐기던 창백한 얼굴의 공대생 한 명이 홀로 남았다. 그렇게 모두에게 잊혀진 채로 그는 외로운 걸음을 뚜벅뚜벅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나간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진우라는 상속인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한 거대한 시험이었던 셈이다. 오직 진우만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 오직 진우만이.”

《디 마이너스》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실제로 민영이를 떠올렸다. 그녀가 내 경험 바깥에 위치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결말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녀는 떠난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의 시야를 나에게 줬다.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이 문장에 담았던 비애와 부채감과 경의를 영원히 그녀 곁에 묻으려 한다. 세상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아주 조금 더 밝아졌고, 그녀의 부재로 인해 아주 조금 더 어두워질 것이다. 이건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사회적 사실이다.

멋있는 언니

김유미

민영 언니는 내가 대학 시절 동경했던 행진의 ‘멋있는 언니들’ 중 하나였다는 얘기부터 하고 싶다. 그 언니들은 그 시절 나의 등불이었다. 그때 언니들이 만들었던 토론의 분위기와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다만 그 뒤를 따라 걸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민영언니는 2008년에 행진의 여성주체였고 2009년엔 조직국장이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역할인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으니,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지만 티는 잘 안 나는 역할이라고만 해 두자. 언니는 여기저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낮은 목소리로 조근조근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런 진심 어린 만남을 바탕으로 우리가 부딪힌 공동의 문제를 정리해내는 데에 탁월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언니의 그런 면들은 언니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운 좋게도 내가 사회진보연대 사무처 활동을 시작하던 2013년에 민영언니도 사무처에 들어와 같은 공간에서 2년 반 남짓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처음으

로 가까이서 언니를 겪으며 실망은커녕 감탄하는 일들 뿐이었다. 요 며칠 여러 사람들이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언니는 항상 남들보다 많은 일을 마다 않고 맡았고, 주위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며 살았다. 선후배동기 할 것 없이 모두가 언니 앞에서 는 부끄러웠으며 알게 모르게 언니에게 의지하며 지냈다.

그리고 언니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언니는 내 시덥잖은 농담에도 악자하게 웃어주고, 대책 없는 아이디어에도 힘차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내가 이래서 김음 사랑함”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이모티콘을 날려줬다.

언니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울해하곤 했단 사실이 두고두고 속상하다. 그건 우리 세대 활동가들, 혹은 여성 활동가들의 고질병 같은 거였다. 잘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간다고, 나는 선배들에 비해 명청하다고, 우리가 부딪힌 어려움들을 해결할 능력이 내겐 없다고… 가장 젊고 가장 빛나는 시간을 그런 우울감 속에 보내는 사람이 많다는 건 너무나 뼈아픈, 우리의 큰 손실이다.

술먹다 언니가 자존감 얘기 할때면 나는 “언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요. 언니 없음 우리 망한다구요” 정도의 말 밖엔 하지 못했다. 민망하단 이유로 상대방 앞에서 칭찬을 잘 못하는 게 나의 나쁜 점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아프게 돌아올 줄은 미쳐 몰랐다. 언니는 나한테 그렇게 많은 칭찬을 해줬는데. 나도 언니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현명한지, 끝도 없이 얘기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언니는 이제 내 곁에 없다.

언니, 언니! 언니가 사라져서 출근길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곳곳에 스며있던 언니 손길이 사라지면 우리 많이 방황하고 많이 혼들릴 거 같아요. 언니만큼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역할 나눠서 해볼게요. 넘칠만큼 많은 사랑을 나와 우리들에게 주어 고마워요. 민영 언니 사랑해요. 편히 쉬어요.

고맙습니다
못다 한 내 뜻을 남아서 할게요

어제는 휴가를 내고 반나절을 잠만 잤다. 전날 먹은 술 때문이기도 했지만 인정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다. 언제나 그러했듯. 당장의 고통과 슬픔에서 도망가서 빗겨나고 싶었다. 한숨 자고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의 애도를 보며 조금은 내 감정에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나도 민영을 보내는 길에 뭐라도 힘을 보태야지. 용기를 낸다. 민영이를 알고 있는 우리 모두의 슬픔을 함께 견뎌내고 민영이 없는 세상을 잘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

민영과의 개인 텔을 돌려 보았다. 온통 업무 이야기다. “선배 (우리가 하기로 했던) 이거 했어요?”, “선배 이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민영이 묻는다. “응… 아직…”, “에고 힘드네 노력해 볼께.”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민영과 나의 관계는.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에 내 앞에 일에만 몰두해 있는 나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보고 숙제를 잔뜩 내주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일을 미루는 이 게으른 선배를, 짜증 한 마디 없이 이끌어 주던. 성실함과 포용력,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재주로 마음을 다독이고, 모으고, 앞장서서 달려가

며 손짓하고, 옆에 앉아 술잔을 기울여 주던 이. 우리 송민영.

모래알 같은 공공운수노조 활동가들의 마음을 모으고 엮어 공동의 운동을 만들려 했던 민영이가, 나의 무심함에, 소심함에, 게으름에 얼마나 답답했을꼬. 난 민영에게 조금이나마 의지가 되는 선배였는가? 아니 힘이 되는 동지였는가? 자신이 없다. 내가 더 잘 했으면, 내가 민영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었으면,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를 갔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마구 내달린다.

하지만, 아마 내가 좀 더 내 삶에 충실했으면 민영의 삶이 조금은 더 의미있고 조금은 더 재미있고 조금은 더 행복했을 것은 분명하다. 뒤늦게 민영의 삶에 대한 내 책임이 무겁게 다가온다. 죽음이 아닌 삶에 대한 책임. 미처 다하지 못한 책임, 그래서 영영 못한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할 책임.

민영이 없는 세상을 민영이 없이 살아가고 바꾸고 싶어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전 술자리에서 “우리 모두 민영이가 되자”는 오래된 구호를 떠올렸으나, 난 내가 민영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난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탁월한 조직가는 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민영이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또다른 수많은 ‘민영이들’, 다른 아닌 내 옆의 동지들의 삶에 대한 책임, 내 뜻을 다하는 것이 때 늦은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리라 믿는다. 관심을, 애정을, 소통을, 연대를, 술자리를, 밥자리를, 솔직한 고백을, 후련한 속 이야기를… 민영과 하고 싶었지만 미처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민영아, 송민영 동지, 고맙습니다. 못다 한 내 뜻을 남아서 할게요. 그대는 편히 쉬세요.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선배

박현의

먼 산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언제든 고개를 돌리면 그 곳에 서 있는 사람들. 굳건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당연한 듯이 서 있는 사람들. 민영 선배는 제게 그런 존재셨습니다.

민영 선배를 처음 직접 마주하게 된건 대학 새내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년이 높아져가도, 나이를 먹어도 선배는 선거운동본부에서, 총학생회에서, 중앙집행국에서, 그리고 민주노총과 사회진보연대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선배는 당연한 듯 서 계셨습니다.

비록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가끔 있는 술자리에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선배가 살아가는 모습은 제게 일종의 부채감이었습니다. 먼 산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민영 선배를 바라보며, 비록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혹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란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선배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명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 같은 분이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선배랑 마지막 연락한 것이 언제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선배의 생일을 축하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올해는 보내지도 않았구나. 아, 왜 그랬을까.

카톡을 더 보니 작년에 허브티 선물을 보냈을때 사진을 찍어 제게 감동했다고 보낸 카톡이 보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펑 돌았습니다. 힘든 길을 가는 선배에게 운동 접은 후배가 선물 한번 보낸게 뭐 대수라고, 그런 작은것에도 고맙다고 사진까지 찍어 카톡을 하는 민영 선배에게 난 제대로 고마워 하기나 했는지 아니면 좀 더 그 작은 정성이라도 더 표현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이제야 선배가 얼마나 제게 큰 존재였는지 느낍니다.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던 선배를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허전함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슬퍼할지언정 절대 선배를 잊지 않을 것이고 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사람이 사망해도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 있으면 그 아직 살아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민영 선배, 비록 떠나셨지만 전 선배를 꼭 기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선배가 어떻게 떠나셨는지 보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민중과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더욱 더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선배. 선배는 떠나셨지만 선배가 제게 주셨던 삶의 이정표.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겠습니다. 가시는 마지막 길 평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지켜봐주세요

장은지

회의 자리나 모임에서 저는 늘 집에 가야 한다며 먼저 일어났어요. 차 끊긴다, 부모님 때문에 그런다, 등등. 2주 전인가 그날은 마음먹고 언니한테 책임지라며 새벽까지 정말 재밌게 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나요. 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웬지 더 재밌게 이곳에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번 회의 때도 맘먹고 낼 하루를 다 비우고 와야겠다고 다짐도 했었지요.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이 되었네요.

언니가 해준 칭찬들, 강원에 대한 걱정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잘 해 갈게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아침에 주섬주섬 집에 갈 채비를 하는 저를 배웅해주며 꿀꿀 챙겨주던 언니의 따뜻함도 잊지 않을게요. 언니네 집을 나설 때 옛날 생각이 났어요. 대학다닐 때 친한 선배언니 집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자선배가 별로 없어서 그리웠나 봐요. 언니가 제 서울에서의 여자 선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니가 그래서 더 좋았나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언니와 시간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고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잘가요 언니….

그녀는 누구보다 현재를 살았고,
그래서 영원히 살 것

부고라는 단어와 송민영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다. 그 단어가 가진 의미와 이렇게 써 놓는 것만으로도 삶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단어를 현실에 소환시킬 수 있는 이 송민영이라는 이름 사이에 놓인 거리감이라니. 아니 차라리 얼마만큼의 거리로든 연결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여부조차 나는 알 수가 없어서 아직도 그 의미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음을 알리는 문자와 공지, 기억을 더듬고 디지털 공간 속에 남겨진 것들을 되찾아 오는 지인들을 보아도 아직 제대로 읊 수 없는가 싶다.

죽음은 삶의 사건이 아니고, 죽음은 살아낼 수 없다. 영원성을 무한한 시간의 지속이 아니라 초시간성으로 이해한다면, 현재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녀는 누구보다 현재를 살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선배는 왜 도망갔다가 돌아왔냐고, 약간 갑자기 물어봤을 때는, 우물쭈물 잘 대답을 못했지만, 그대 같은 후배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랬다고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잘 가요, 민영 동지.

공항가는 길이야

박상은

민영아 너 마중나가는 길이야. 공항철도를 타면 집회하러 맨날 서울역 쪽으로 가는데, 아주 가끔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갈때면 기분이 들떴어. 그게 출장이어도 누군가를 배웅나가는 거여도 왜인지 여행가는 기분에 붕붕 뜨는 거 있잖아. 그런데 그 방향으로, 너를 맞이하러 가다니. 나는 이제 항상 이 길에서 오늘을 떠올릴 것 같다.

에이씨, 때려쳐 때려쳐 하면서도 못 때려치고 오십 육십 먹게 되겠지 싶었는데. 그때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술 먹을 사람 중에 너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가끔 ‘진짜 우리 뭐 할수나 있나’ 싶을 때 그래도 우리 동기들이랑은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생각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저축 들어놓은 것 같고 노후보장 된 것 같고 막 그랬다.

운동이 망해도 너는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네가 없어서 우리 이제 망했다. 어 떠하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네가 없는 자리를 1%라도 메꿀 수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나중에 너 만나서 “야 너땜에 망했잖아” 이러면 안되니까 열심히 할께. 1%라도 메꾸게. 나머지 99%는 네가 사랑하는 선후배동기들이 메꿔줄 거라 믿어.

단비처럼 아름다웠던 민영아

“언니, 소식지 제목 ‘단비’ 어때요?” “언니, 웹자보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입체감 느껴지게 처리해봤는데 느낌이 사는지 모르겠네.” “언니, 나 지금 태국에 와있어요. 고생하는데 미안해요. 돌아와서 풀무원 선전물 도와줄게.”

너의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선한데, 너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故자가 믿기지가 않는다. 민영아, 우리 지역 동지들도 너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다며 내일 공항에서 너 데리고 청주로 오라고 하셔.

민영아, 사무실 옆 가경천에 살구꽃 뺐을 때 기억이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내고 같이 허둥지둥했던 기억이며, 우리가 함께 만난 사람들 함께 꿨던 꿈들 그 모든 것을 두고 어디로 갔니.

재주 많고 사랑스럽던, 저절로 존경심 생기던 후배 민영아. 세상을 적시는 단비처럼 아름다웠던 민영아. 나는 아직도 너의 빈자리를 감당할 자신은 없지만, 네가 꿨던 꿈 이어가며 네가 꿨었던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게.

민영아 거기서는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으렴. 민영아 잘 가라.

늦게 쓰는 편지

해태

당신을 알게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세보려고 하니 제가 사회진보연대 회원이 된 시간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음 들어간 날 당신이 거기 계셨고, 그 이후로도 활동하는 공간(서부모임)이 겹쳐 여러 번 마주치고, 얘기 나누고, 술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부대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겹친다고는 하나 라이프 사이클이 다른 활동가들과 직장인 회원이 마주칠 기회는 사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기억 속에서 집회에서 선전전에서 농성장에서 세미나에서 유독 당신이 거의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일이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일했던 만큼 우리 단체가 커왔다는 걸, 저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회진보연대라는 이름이 조금씩 깊게 새겨졌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해태 님처럼 취업하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집회 끝나고 술한잔을 하다가 당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당신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위안

받는 느낌도 들었고, 이 사람에게라면 진심을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 속에서 몇 번의 싸움을 거치고 또 겪어야 그렇게 진심 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때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부딪침도 있었습니다. 들어온 지 1년쯤 지난 뒤였던 것 같습니다. 서부모임에 대한 평가를 좀 하자고 마련된 자리에서 저는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몹시 거칠고 공격적으로 제기했었고,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그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러는 저에게 바로 맞짱을 뜨지 않고 똑한 표정으로 안건지를 보고 있다가, 저의 논리가 조악해지고 말도 안 되는 혀소리를 하고 있을라치면 근데 그 부분에선 그건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뒷풀이로 가서는 똑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제게 항상 먼저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품었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나씩 내보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오래 활동할 수 있고, 그 모습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보겠다고 뛰어들 수 있고, 그렇게 조금씩 세상 굴려가면서 또 이만큼 했다고 서로 위안할 수 있는 모습이 어디 멀리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또 가끔씩 잘 안 될 때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하시던 대로 신나게 놀고 웃고 마시며 어차피 정해진 답 없다고, 즐기기라도 하자고 그렇게 해나가면 꼭 잘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시는 건 당신께 받은 빛 한 조각씩 마음에 박혀서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먼저 안부 물어주고, 연락해주고, 댓글 달아주고, 웃어주고…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늘 해오셨던 일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들이었는지, 당신의 가까운 벗도 멀리 떨어진 옛 동지도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동지 해태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보나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동지,
민영 선배에게

민영 선배, 저는 관악 출신은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동지의 후배 정도는 되는 사람 이에요. 저는 민영 동지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추도식과 영결식, 그리고 장지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선배의 모습이 마음을 움직여 용기 내 몇 자 적어봅니다.

일정들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선배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꼭 배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알았더라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은 선배였다는 생각에 아주 아쉽고 슬펐어요. 사람들이 선배를 소개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말이 뭐였느냐면요, ‘이걸로는 우리 민영이를 소개하기 부족하겠지만’ 이더라고요. 성실한, 공부하는, 주위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제가 할게요’라는 말이 입에 붙은, 어떤 형용사들보다 거대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 유골을 봉안할 무렵 어떤 대화를 들었어요. “조직국장이 끝까지 조직화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주위를 둘러보니, 과연 수많은 사람이 선배 영정 뒤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라는 그 노래를 부르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선배가 ‘앞서서 나가’는 존재가 될 거로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영정 속 선배 모습은 너무도 젊고 빛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지의 죽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 더 충격적이었고, 남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낯익은 선배들이 5살은 더 먹은 듯한 수척한 낯빛, 통통 부은 눈을 하고 서도 더 울 수 있다는 표정을 하고 선배를 바라볼 때, 마음이 참 저려왔습니다.

선배, 선배 아버님께서 준비해주신 식사 중에 동기와 이야기하다간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동지의 장례식을 함께 치르며, 슬픔의 온도를 같은 장소에서 공유하며, 우리에게 “어떤 동질감 같은 게 생긴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비단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동지의 꿈을 받아 안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같은 셈이고, 이게 앞으로 우리를 묶어줄 따뜻한 끈일 거예요. 말하자면 동지는 남은 사람들에게 이정표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정표라는 건 목적의 기준이잖아요. 선배의 꿈을 받아 안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은, 지금의 세상이 매우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송민영이 살아가던 세상’과 ‘송민영이 없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할 세상’ 단 두 개로 구분되기에 말이에요. 지금은 하염없이 울더라도, 선배의 다정한 그림을 닮은 세상을 지향하겠다고, 더 뜨겁게 살겠다고 새삼 약속해 봅니다.

이렇게 운 장례식은 세 손가락 안에 꼽혀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알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다녀와서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 이 세상에 같이 있었다’고 느끼게 된 장례식도요.

선배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온 마음을 다해 추모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프고 미안하다

민영에게. 80년대를 살아왔던 너의 아빠와 함께 했던 두봉아저씨다. 넌 잘 모를거야. 어려서 꼬맹이 때 보고 못봤으니.

우직하고 말이 없던 너희 아빠는 화물차 짐을 풀자마자 달려온 충장로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지. 종종 마주한 자리에서 자식 얘기를 많이 안하셨어. 착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 밖에는. 아비 어미들이 못다한 좋은 세상의 꿈과 희망의 길이 네가 서 있었다는 사실도 사회진보연대의 부고를 폐북에 공유한 후배의 글을 보고 알았지. 사실 사회진보연대란 단체도 잘 몰라. 너의 죽음을 통해 인터넷을 뒤지고 겨우 감만 잡았을 뿐이지.

아프고 미안하다. 너희에게 물짠 세상 물려주어서.

그리고 잘 가렴.

행여 다른 세상이 있거들랑 네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랑 저승길 헤메이는 세월호의 어린 넋들도 안내해주고, 한반도 남쪽에 좋은 세상 오도록 힘도 보태주렴. 미안하다….

박영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교비정규직과 함께 해주셨던 똑똑하면서도 참 따뜻했던 사람으로, 눈도 함께 웃어주었던 진심을 기억합니다. 특히나 려목이가 참으로 좋아한 동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재영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항상 미소를 간직한 동지

항상 밝은 미소를 잊지 않았던 동지여….

어제까지 리플도 달고 밝은 미소에 좋아요 누르고 했는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숙 투쟁에 내 일처럼 함께하며 항상 웃으면서 다니는 모습에 사회진보연대
'미소천사'라는 별명까지 붙여주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믿을 수 없네요….

그대의 밝은 미소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언니 나야 진랑이

김진랑

오늘 아침에 선전전이 있어서 홍대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어디쯤에 내렸어. 이동네는 어디야 대체 이러면서 내렸는데 길이 눈에 익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언니가 맛있다고, 근데 비싸서 자주 못가는 곳인데 무슨 노조에 그림 그려준 알바비 들어왔다며 한턱 쏘겠다고 해서 윤영 언니랑 셋이 신나서 갔던 그 가게 앞이더라. 그 가게가 눈앞에 보이니 또 활짝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우리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삶같아.” “돈 많아서 맨날 양갈비 먹으면 맛없어, 가끔 먹어줘야 행복하지.”

배부르게 먹고 가게 문을 나서면서 키킬거리며 나눴던 대화들도 떠올랐어. 그 날이후 한동안 ‘우리 양갈비 가끔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 우리 운동판 떠나지 말고 같이 활동 열심히 하자!’가 서로를 복돋는 말이었는데….

참, 소박도 하다. 그치? 예잇 참.

내가 언니는 어깨가 정말 예뻐, 언니는 피부가 정말 좋아, 머리자른거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하면 멋쩍게 웃으며 나한테 예쁘다고 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고 고맙

다고 매번 그랬어. 근데 알지? 나 맘에 없는 말은 절대 못하는 사람인거. 언니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언니랑 춤추러 가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니 친구 댄서야? 할만큼 춤도 엄청 잘 췄지. 반달눈을 하고 예쁘게 웃으면서 춤추던 언니가 눈에 선하다. 한겨울 집회마치고 춤추러 가기로 한날, 집회용 패션과 클럽용 패션, 그 중간쯤 합의지점을 찾는 옷을 입고 나오느라 애먹었다며 그러니 오늘은 더 열심히 놀아야 한다고 했던 언니.

언니랑 텔레로 키보드 두드리며 주고받던 시시콜콜한 얘기, 누가 요즘 이렇다 더라 하던 얘기, 끝없이 풀어놓던 내 푸념들, 연남동에 회의 있을때 가면 덤으로 언니 얼굴도 한번 보겠군 싶어했던 내 마음.

나에게 소소한 행복이고 일상을 버텨내는 작은 힘이었다는 걸 언니는 알까.

여행가서도 윤영이랑 술먹고 있는데 니 얘기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언니 메세지가 자꾸 떠올라서 가슴이 무너진다. ‘여행가서도 내 생각하네’하면서 혼자 속으로 엄청 좋아했었는데. 여행 다녀오면 하자던 송년회 땐 내가 맛있는거 사야지 했었는데.

지난 삼일 동안이 진짜 있었던 일이었나, 자꾸 자꾸 생각해. 많은 사람들한테 언니 얘기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언니 손길, 마음이 안 닿은곳이 하나도 없을까 싶어서 그게 너무 속상했어. 그리고 자랑스러웠어. 감히 언니 뒷까지 열심히 살게라고 말 못하겠다 어떻게 언니만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치만 내 뒷, 내 역할 잘 해나가면서 그렇게 언니 기억할게. 하늘에서 많이 응원해주라. 언니야 보고싶다. 사랑해 많이 많이.

하늘나라에서도
예쁨 독차지 하면 안 돼요

쏭! 우리가 만난지가 벌써 오 년이 훌쩍 넘었지??

요맘때였던가? 하여간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함께 일할 친구라며 성영이가 인사시켰지. 이리 예쁜 젊은 그것도 서울대까지 나온 것이 민주노총, 그것도 노동 운동의 메카 쯤으로 불리는 울산도 아니고 인구 대비 2%를 조금 넘는 자그마한 충북으로 왜 올까, 의아해 했어.

그리고 얼마 후 함께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와 술도 잘 먹네,’ 당시 우리 자기 왈 쏭과 려목 보면서 한마디 날렸지. “머리 좋은 것들이 춤도 잘 춰.”

우리 자기 만난것도 쏭한테 젤 먼저 이야기 했는데, 앗 정지영 동지도 있었고, 그리고 맨날 몰래 데이트 할때 마치 희망원 부지회장과 사업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쏭을 방패막이 삼았었는데. 한마디 불평없이 옆에서 함께 해 주고 우리 자기 챙겨주고….

쏭은 언제나 그랬지. 누구보다 현장 동지들에게 배우려고 귀기울이고 현장 동지들 힘들어하면 즐겁게 해주기 위해 별컥별컥 소주잔을 들이키고, 노래방에서 아

이돌 귀때기 날리며 춤을 췄었지.

쏭이 힘들어 할땐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난 그래서 쏭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몰랐어. 정말 나쁜 쳐장였어. 내가 눈치만 좀더 있었어도 쏭이 힘들어 할 때 알아채고 어깨 빌려주고 함께 이겨나갔을텐데. 그리 못해서 못난 쳐장이라 너무 미안해.

우리 자기하고 결혼하고 나서 딸을 낳으면 꼭 쏭처럼 이쁘고 똑똑한 딸 낳자고 다짐했는데, 창혁이를 낳아버렸네. 결혼하고 창혁이 낳고 돌 치르고… 항상 쏭은 그 중요한 자리에 함께 했었잖나.

항상 쏭은 나에게 믿을 만한 동료였고 듬직한 동지였어. 이렇게 편히 말 놓으니 더 친근한데. 쏭, 쏭, 우리 쏭. 나 한번도 그리 못 불러봤는데 마지막으로 ‘민영아’라고 불러도 돼?

민영아. 너 사고 소식듣고 얼마나 미치겠던지. 빌어야 하는데, 너가 무사히 돌아오길 빌어야 하는데, 빌 신이 없어서 그냥 울기만 했어. 그리고 이를 내내 울다 명하니 있다 영정 안에 있는 민영이 보니….

내 생전 울 거 다 운 것 같아, 이젠 안 울거다. 이젠 다시 정신 챙기고 민영이가 꿈꿨던 세상 만들어갈게. 민영이도 하늘나라에서 나랑 우리 자기랑 창혁이 지켜보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옆에 있어줘. 아니 이젠 우릴 지켜주는 수호신이 돼 줘. 이기쟁이 김용직….

누구 시처럼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답게 살다 왔다고 자랑하고 계셔. 난… 음… 육십 년 정도만 더 살고 민영이 보러갈게. 그때까지 잘 살고 있어.

안녕. 안녕 우리 쏭 민영아.

송!

송! 지금 우리처럼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을 때 남은 사람들은 애도라는 것을 한다는데. 얼마나, 또 어떻게 하는 것이길래 그 정신과정을 거치면 다시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일까? 회복. 그게 송이 옆에 있던 때의 마음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 송이 없었던 대과거로 나를 돌려보낸다는 것일까? 그 과정을 거치면 오늘의 이 슬픔이 줄어든다는 걸까 아니면 우리 마음 안에서 송이 조금씩 작아진다는 걸까? 작아진다니, 그렇게 너를 두어도 될까?

아직 네가 불들린 이름도 낯선 남국의 어느 병원을 상상하려니 마음이 무너진다. 올해 초였나, 남들 다가는 동남아 여행 티켓을 쥐었다고 한동안 뿌듯해했던게. 일찌감치 여행을 계획해놓고 심심하면 자랑을 했던터라 얘길 들을 때마다 그놈의 동남아 아직도 안갔냐고 타박도 했던 것 같다. 휴가답게는 처음 나간 해외여행이니 말린 망고라든가 하는 시시한 기념품이라도 사오겠지 기대하던 우리를 두고, 송, 어떻게 이러니.

너에게 마음을 오래 주었던 어떤 이는 그랬었지. 서울대 아크로에서 했던 학

내 행사였댔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눈길을 끄는 차림의 여학생이 왔는데 민중의례 순서가 되자 그 패션의 완성으로 보이는 모자를 휙 벗어서 두손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던 모습이 반전 매력이었다고. 우리 또래의 싸가지로는 흔치 않게 모자를 벗는 그 모습에 반했다고. 그 이야기 들을때면 고개를 끄덕였지. 아대오의 대표 패셔니스타이던 송은 사실 운동권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면 고색창연할법한 것까지도 소중히 생각하던 성실한 활동가란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 노조 조끼를 두고 이걸 입으면 어떻게 해도 예뻐 보일 수 없다고 탄식하던 송, 그래도 그 조끼를 입고 낯선 지역에서 열심히 돌아다닌 송 ….

송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던가? 그래 한번도 없었지 하는 대답을 하려니 다시 마음이 무너진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대신 송은 우리를 늘 놀라게 했지. 또 일찍 왔구나, 늦어서 미안해, 언제 이것까지 했어, 대단하다, 또 어디까지 다녀왔다고? 안 피곤해? 우리가 송에게 묻던 말들. 송이 학생 때부터 만든 선전물들 모으면 종로 바닥은 덮을거야. 그 중엔 잊혀지지 않을 정말 멋진 역작도 있지. 그렇게 재능과 마음을 다해 싸우고 사랑하던 송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송 너는 정말 삼십 년만 살고 가려고 세상에 온거였나?

우리가 송을 잊은 날, 송과 나와 나이가 같은 1984년생 마크 주커버그인지 하 는 성공한 IT기업가가 아이를 낳았다고 뉴스가 그래. 딸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50조가 넘는 돈을 사회에 기부할거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비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행동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오나봐. 기쁜 날 어찌고 하는 인터뷰가 들려서 나는 또 운다.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송이 떠난 날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좋 아지면 뭐해요 송도 없는데 … 정말 묻고 싶다. 너도 없는데 이제 뭐가 남지?

송! 송이 서 있던 싸움들, 곳곳이 생각난다. 송이 우리 옆에 있었다면 언젠가

우리가 더 떠들썩하고 눈물나게 멋진 뉴스들을 더 만들 수도 있었을텐데, 아니, 송이 사람들에게 박수 밟을 일을 해도 송은 티비에는 안 나왔을거야. 송이 그런 타입은 아니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송은 묵묵한 편이었고, 근데 또 그게 힘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늘 우리들의 중심에 있었던 송. 송을 보면 그악대던 스스로가 창피할 때가 많았어. 빛나는 판단과 혼신은 송처럼 조용히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인데. 송 너는 춤도 잘 춰, 뛰든 똑딱똑딱, 티비에 나오는 예쁜 가수나 배우들에 대해서도 박사님이던 재미있는 너는, 그들을 한 트럭 쥐도 우리가 송 하나랑 못 바꾼다는 사실을 알아줄까? ‘난 왜 적당한 애교도 없담’하고 스스로 책하곤 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너. 조직의 구석 구석과 친구들 사이 사이, 모난 마음들을 찾아가서 묘하게 누그러뜨리던 보석같던 송. 너를 줄줄이 따르던 그 후배들, 송을 철썩같이 믿던 선배들, 송의 면면을 아는 우리는 오늘 모여서 울고, 따로 울고, 밤새 운다.

반지하방에서 또 지금 사는 반지하방으로 이사하던 날, 내 눈에는 별론데 너는 그럭저럭 방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부모님 떠나 10년을 살아도 여자 둘이 옮기니 허탈하게 금새 끝나던 이사. 닦아도 닦아도 똑같은 싱크대를 벽벽 문지르며 나는 송이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코끼리같은 세탁기를 화장실에 앉히고 나니 수평이 안 맞아서 흔들 흔들. 너는 내게 세탁기를 개어 놓을 판자나 벽돌을 구해오라는 특명을 주었지. 어두워지기 전에 찾으려 주택가를 달음박질로 뻥뻥 돌아드디어 구해온 돌들을 보고 송 너는 내게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여줬었다. 그것 빼고는, 세탁기 바닥 받침용 돌멩이 그것 빼고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없구나. 이사를 마치고 든든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술을 기울이던 저녁. 그 저녁이 이제는 없구나.

우리가 때로 배신감 혹은 예기치 않던 소소한 불편 불행들에 대해 투정할 때

조차도 함께여서 좋았다. 이 투쟁이 이렇게 끝나다니, 보일러가 또 고장인데 집주인은 또, 하던 그런 … 한다고 했는데 실패한 사랑이 그 시간의 무게만큼 우리를 후려칠 때도 개새끼 소새끼, 마서 마서 함께 밤을 보내던 날들이 이제는 없구나. 송이 면허를 따고 봉고차로 더듬더듬 운전을 시작하고 그런 송 옆에 앉아서 같이 교통신호를 읽으며 덜덜 떨며 도심으로 서명을 받으러 달리던 오후가 이제는 없구나. 옛날 녹두거리, 1층이 무슨 가게였고 2층은 송네 집이었을 때 아래에서 송 이름을 크게 부르면 듣고 내려오던 송이었는데, 귀도 밝고 발도 빠른 우리 송이 이제 없다니.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는 올해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울어놓고 무안하니 술버릇이라고는 했지만 활동하는 게 생각처럼 안풀리니 어렵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 볼 만하다고도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런저런 핑계로 떨어져 있는 나에게는 매운 타박대신 어려운 주변의 얘길 하는 것으로 내 맘을 무겁게 했지. 그게 얼마 전 송 네 생일날 밤이었나, 세상에 송민영으로 사는 서른 두 살 마지막 생일날 밤. 그래도 그 밤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빛나던 송, 우리 송민영. 민영 언니, 송 총무, 송 동지, 아직 세상에 좋은 것, 맛 있는 것, 기쁜 일, 너무 많이 남았는데, 곧 언젠가는 미뤄왔던 것 다 하자 했는데, 이런 것에도 하늘의 뜻이란게 있을까? 그런 것을 이해할 날이 올까?

송, 우리에게 작별 인사가 가당키나 하니? 그냥 다시 만날 때까지 헤어져 있다고 생각할게. 송의 카톡 말풍선에 있는 말처럼 폭 자고 나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기억해. 송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사랑했고, 열심히 사는 이름 모를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넸고, 많은 날들을 그들과 우리를 위해 살아왔다. 송 너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억 갖고 가라. 사랑한다 송민영아.

세상을 적시는 단비 같은 사람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송민영 추모집

펴낸날 2016년 1월 19일

편집 구준모 김유미 김윤영 이아림

이지윤 채려목 홍명교 황수진

디자인 김영글

펴낸곳 사회진보연대

주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29길 14-1 3층

전화 02-778-4001

팩스 02-778-4006

홈페이지 www.pssp.org